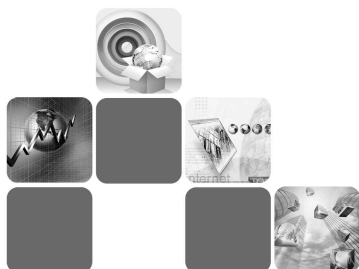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SW       |              |

## II. 트레이드 GPS ..... 28

1. 비대면 시리즈④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 29
2. 비대면 시리즈⑤ RFID ..... 34
3. Ex-Briefing ..... 38

## III. 부록 ..... 41

1. ICT 생산 통계 ..... 42
2. 2021년 3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43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0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56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57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1.3월 ICT 수출은 174.1억 달러(8.9%↑), 수입은 109.3억 달러(15.7%↑) 기록

-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한 174.1억 달러로 '20.6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품목별로는 D-TV 등은 부진한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났으며, 국가별로는 일본·베트남 등이 감소했으나 중국(홍콩)·미국·EU 등 국가에 대한 수출은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95.7 (7.9)	16.9 (2.9)	11.0 (8.7)	1.1 (△42.2)	13.1 (6.7)	174.1 (8.9)
중국(홍콩)	57.3 (6.8)	8.9 (2.5)	3.7 (59.0)	0.0 (△74.1)	4.9 (3.1)	82.2 (7.7)
미국	7.0 (0.5)	0.2 (△19.7)	1.1 (△70.0)	0.0 (14.4)	3.9 (10.4)	20.6 (4.1)
일본	1.1 (6.7)	0.1 (△51.6)	0.2 (28.9)	0.0 (△91.5)	0.8 (△25.3)	4.1 (△1.8)
EU	1.8 (△18.4)	0.3 (△5.6)	2.2 (410.7)	0.2 (△15.0)	1.4 (11.7)	11.1 (19.9)
베트남	10.0 (△11.0)	6.7 (6.2)	2.2 (△10.0)	0.1 (△61.4)	0.2 (62.2)	23.5 (△3.8)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대비 15.7% 늘어난 10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휴대폰(7.9억 달러, △4.9%), 디스플레이(3.1억 달러, △14.0%)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46.9억 달러, 12.8%↑), 컴퓨터 및 주변기기(15.6억 달러, 39.1%↑) 등은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45.1억 달러), 베트남(13.4억 달러), 미국(13.5억 달러), EU (5.4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64.9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1년		2020년	
		3월P	1분기P	3월	1분기
수출	전체 산업	538.3 (16.6)	1,466.6 (12.7)	461.7 (△1.8)	1,301.8 (△1.9)
	ICT	174.1 (8.9)	489.6 (13.6)	159.9 (1.1)	430.9 (0.4)
수입	전체 산업	496.5 (18.8)	1,360.1 (12.0)	418.0 (△0.4)	1,215.0 (△1.9)
	ICT	109.3 (15.7)	308.7 (18.8)	94.5 (2.8)	259.8 (0.3)
무역수지	전체 산업	41.8	106.4	43.6	86.8
	ICT	64.9	180.9	65.5	171.1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21년 시장은 장기 호황 진입으로 성장세 확대 전망, 1분기 국내 업체 실적은 엇갈려

- (시장 전망) '21년 반도체 시장은 장기 호황 진입이 예상되면서 메모리·비메모리 시장 동반 성장으로 2년 연속 성장세 예측('20년 10.4% ↑ → '21년 16.9% ↑)(Gartner, '21.3월)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으로 반도체 장기 호황이 예상되면서 '21년 반도체 시장은 16.9% 증가한 5,451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메모리 시장(1,551억 달러, 24.5% ↑)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온라인 스트리밍 등 비대면 환경에 따른 PC 및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24.5%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비메모리 시장(3,900억 달러, 14.1% ↑)은 수요 증가에 따른 파운드리 공급 물량 부족이 심화된 가운데 5G·AI·IoT·무인차 등 신규 수요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
- ('21.1분기 실적) 극심한 반도체 부족 상황 속에 국내 업체의 실적은 엇갈린 흐름이 관측
  - 모바일·PC向 수요 증가에 따른 D램 부분의 선전과 더불어 낸드플래시 부분의 손실 축소 등으로 '20.1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1조 3,000억~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8,003억 원) 대비 약 70%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잠정 집계
  - 반면 삼성전자는 전체 사업부문에서 9조 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잠정 실적)했으나 이 중 반도체(DS) 부문은 3.5조 원에 그쳐 전년 동기(4.0조 원)대비 약 20%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 메모리 사업은 양호한 수요로 시장 예상치 수준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나 이례적인 한파에 따른 미국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손실<sup>2)</sup>이 불가피 했을 것으로 분석

그림 1-1 | 전체 반도체 시장 전망 및 국내 주요 업체의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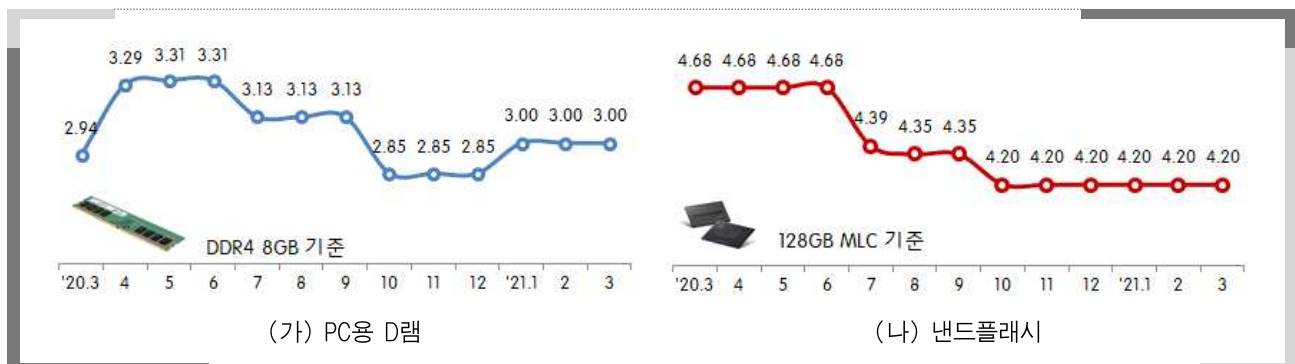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1.3. / KB증권

2)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가동 중단으로 삼성전자는 3,000~4,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

## □ '21.3월 메모리 고정가는 보합세 지속...2분기엔 본격적인 상승 국면 진입 전망

- 서버용 D램을 제외한 PC용 D램, 낸드플래시 등은 횡보했으나 서버 투자 확대 및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반영되면서 '21.2분기 메모리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D램) '21.3월 서버용 D램(32GB)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대비 5.04% 오른 125달러로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 PC용 D램(DDR4 8GB)은 3개월 연속 3.00달러를 지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로 서버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차량용·스마트폰용 등 반도체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분기 D램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8~23% 상승할 전망
  - ※ 트렌드포스는 '21.2분기 D램 가격에 대해 당초('21.3월) 전 분기 대비 13~18%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요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한 달 만인 4월, 2분기 가격이 18~23% 상승할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128Gb MLC) 고정거래가격은 4.20달러로 '20.10월 이후 6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2분기에는 가격이 약 3~8% 상승할 것으로 전망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고정거래가격, 2021.3.

## □ 마이크론·웨스턴디지털, 키옥시아<sup>3)</sup> 인수 검토...낸드플래시 시장 내 판도 변화에 주목

- 미국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이 낸드플래시 역량 강화를 위해 키옥시아 인수를 추진
-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확보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마이크론('20.4분기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5위)과 웨스턴디지털(동 기간 3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옥시아 인수를 검토. 시장 기반을 갖춘 기업 인수를 통해 단기간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
  - ※ '20.4분기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트렌드포스, '21.3월) : (삼성전자) 32.9%, (키옥시아) 19.5%, (웨스턴 디지털) 14.4%, (SK하이닉스) 11.6%, (마이크론) 11.2%, (인텔) 8.6%

3) 키옥시아는 도시바메모리의 낸드플래시 사업부문을 분사해 설립한 회사로,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18년 사모펀드(PEF) 베인 캐피탈이 주도하는 키옥시아 투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3,950억 엔(약 4조 원)을 투자

- 비상장 기업 키옥시아의 현재 가치는 약 3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인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올 봄 인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번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키옥시아는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21.3분기 내 IPO(기업 공개)를 추진할 계획
  - ※ 키옥시아는 '20.10월 IPO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이를 연기
- 미국 반도체 기업의 키옥시아 인수 성사 시 낸드플래시 업계의 지각 변동은 불가피
  - 낸드플래시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인텔(낸드플래시 사업) 인수 결정('20.10월)으로 5강 대결<sup>4)</sup>로 좁혀진 가운데, 이번 키옥시아 인수가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웨스턴디지털·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4강 체제로 축소 재편될 것으로 전망
  - 인수 합병으로 시장이 4강 체제로 축소될 경우 시장 내 경쟁 완화 및 수익률 개선 가능성 등 낸드플래시 산업의 구조적 개선 효과로 시장 참여 업체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반면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형 낸드플래시 기업 탄생에 따른 미국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점유율 격차 축소 및 역전 가능성 등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 낸드플래시 시장 1위를 유지 중인 삼성전자가 시장 2위로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 (마이크론-키옥시아 인수)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기존 11.2%에서 30.7%로 확대돼 시장 1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2% 내외로 축소되고, SK하이닉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
    - ※ (웨스턴디지털-키옥시아 인수) 웨스턴디지털의 점유율은 기존 14.4%에서 최종 점유율 33.9%로 시장 1위에 올라서는 반면 삼성전자는 2위로 하락

## 2) 수출 동향

### □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 동반 성장으로 '21.3월 반도체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세

- (품목별) '21.3월 반도체 수출은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호실적을 달성하며 전년 동월대비 7.9% 증가한 95.7억 달러를 기록
  - (메모리 반도체: 61.2억 달러, 8.2%↑)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데이터 센터, PC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MCP, D램 등을 중심으로 증가. '20.9월 이후 7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시스템 반도체: 29.0억 달러, 9.3%↑) 파운드리 등 수출이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증가한 반면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은 감소

4) SK하이닉스의 인텔(6위)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인수가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11.6% → 20.2%로 확대되며 낸드플래시 시장은 당초 6개 기업이 경쟁하던 구조에서 5강 체제로 재편



- 중국(홍콩포함, 57.3억 달러, 6.8%↑)은 시스템 반도체(23.0%↑)와 메모리 MCP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2.3%↑)가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베트남(10.0억 달러, △11.0%)은 메모리 MCP, D램 등 메모리 반도체(44.4%↑)가 증가했으나 시스템 반도체(△33.7%)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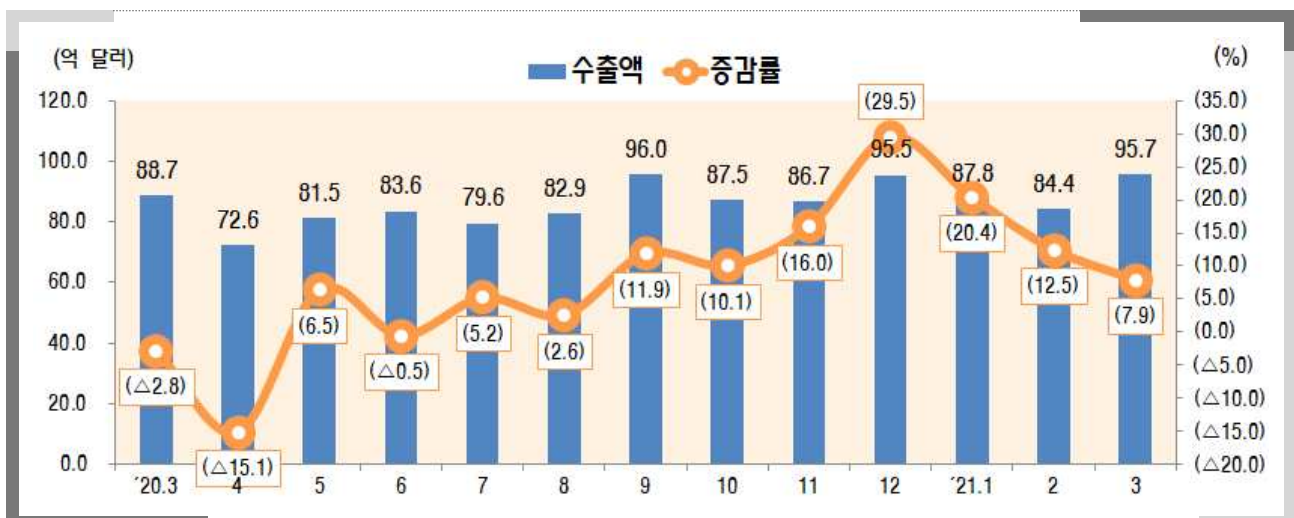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3
반도체	88.7 (△2.8)	72.6 (△15.1)	81.5 (6.5)	83.6 (△0.5)	79.6 (5.2)	82.9 (2.6)	96.0 (11.9)	87.5 (10.1)	86.7 (16.0)	95.5 (29.5)	87.8 (20.4)	84.4 (12.5)	95.7 (7.9)
메모리	56.6 (△13.5)	49.9 (△14.9)	57.8 (9.8)	57.7 (△2.0)	49.7 (5.0)	50.7 (△2.3)	61.9 (9.8)	54.3 (9.0)	51.9 (7.3)	59.9 (25.1)	53.2 (24.9)	52.2 (12.6)	61.2 (8.2)
D램	26.6 (△8.3)	27.3 (△2.4)	28.4 (20.2)	29.5 (18.1)	25.2 (16.3)	24.3 (8.1)	29.3 (24.6)	25.2 (14.2)	23.7 (8.3)	25.1 (18.9)	23.8 (19.8)	22.7 (5.6)	26.9 (1.3)
낸드	4.9 (△17.4)	5.3 (△20.5)	4.8 (1.2)	4.8 (9.5)	4.9 (△1.3)	5.0 (4.2)	5.8 (44.9)	5.1 (△1.4)	5.0 (12.2)	6.8 (77.2)	4.9 (△13.5)	4.6 (△7.4)	4.4 (△9.7)
MCP	20.2 (6.3)	14.4 (△9.3)	21.2 (44.9)	19.0 (△4.4)	15.7 (9.7)	17.8 (0.6)	22.6 (14.7)	19.6 (21.9)	19.2 (27.7)	23.9 (34.7)	20.7 (59.5)	21.4 (41.7)	25.4 (26.0)
시스템 반도체	26.5 (32.7)	18.5 (△13.0)	19.4 (5.2)	21.4 (6.8)	24.6 (8.1)	27.1 (15.9)	28.5 (16.8)	28.2 (14.9)	29.8 (39.1)	29.9 (44.8)	29.1 (15.9)	27.0 (13.2)	29.0 (9.3)
개별 소자	1.4 (6.5)	1.1 (△13.2)	1.1 (△17.5)	1.2 (△6.5)	1.4 (△3.1)	1.3 (△3.7)	1.4 (9.6)	1.4 (2.6)	1.5 (12.7)	1.5 (17.1)	1.5 (30.2)	1.4 (10.5)	1.5 (12.6)
광전 소자	3.0 (△7.3)	2.1 (△35.8)	2.2 (△31.1)	2.2 (△22.7)	2.8 (△9.7)	2.7 (△13.2)	3.0 (11.8)	2.4 (△11.4)	2.3 (△9.3)	2.9 (△1.9)	2.8 (△12.5)	2.7 (0.1)	2.7 (△8.9)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399.1	6.9	39.8	중국	35.1	11.6	36.6	100.9	16.9	37.7
2	홍콩	207.4	-7.0	20.7	홍콩	22.3	0.1	23.3	56.5	4.3	21.1
3	베트남	115.1	7.0	11.5	베트남	10.0	-11.0	10.4	30.0	-7.0	11.2
4	미국	80.7	25.8	8.1	대만	7.9	88.7	8.2	22.5	109.4	8.4
5	대만	63.7	43.2	6.4	미국	7.0	0.5	7.4	19.8	6.7	7.4
6	필리핀	29.0	1.1	2.9	싱가포르	3.3	10.6	3.5	7.8	9.1	2.9
7	싱가포르	25.8	11.4	2.6	필리핀	2.5	15.5	2.6	7.5	17.7	2.8
8	말레이시아	13.5	3.3	1.3	말레이시아	1.2	-13.3	1.2	3.6	1.1	1.3
9	일본	10.8	-16.9	1.1	일본	1.1	6.7	1.2	2.9	10.4	1.1
10	인도	10.7	-26.8	1.1	인도	1.0	49.6	1.0	3.8	24.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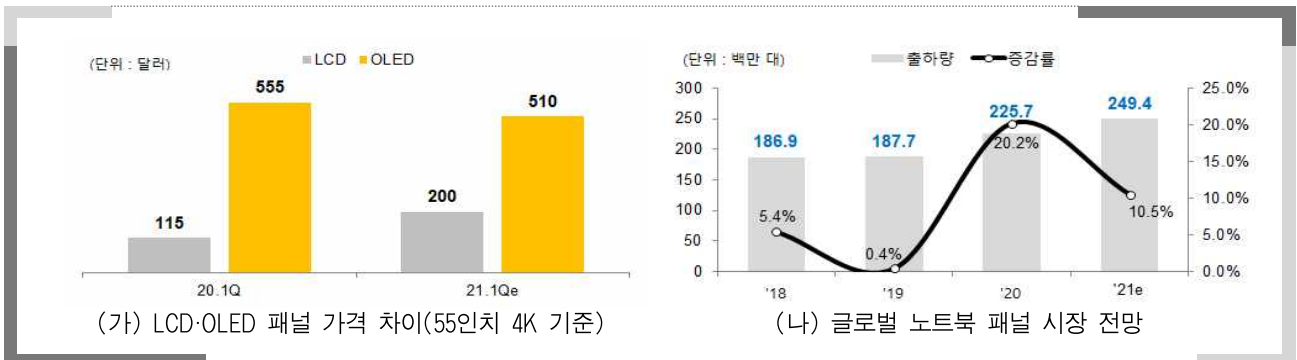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LCD·OLED 패널 간 가격 격차가 축소되면서 OLED 패널 대체화가 가속화될 전망

- (시장 전망) 전방 업체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 변화로 OLED 패널 수요 증대가 기대
  - (LCD 패널)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부품(DDI 등) 공급난 등으로 LCD 패널 생산 차질이 빚어지면서 LCD 패널 가격 상승세는 '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
    - ※ 55인치 4K 패널 기준 OLED 패널과 LCD 패널 가격은 '20년 초의 경우 4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21년 초 약 2.5배 수준으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을 관측. 전방 업체들은 OLED 패널의 원가 부담 축소에 따라 OLED 전환에 가속
  - (OLED 패널) LCD 패널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전방 업체들이 TV·스마트폰·IT 기기 등에 OLED 패널 채용을 확대하며 LCD→OLED로의 세대교체 속도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관측. 이에 따라 OLED 패널 수요 확대가 기대
    - ※ 삼성전자는 태블릿PC, 노트북 등에 OLED 패널을 채용한 모델을 출시했으며 애플은 내년부터 아이패드, 맥북('23년 출시 예정), 아이맥('24년 출시 예정) 등으로 OLED 패널을 확대 적용할 계획
- 한편 올해 노트북용 패널 시장은 비대면 수요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할 전망
  - 코로나19로 노트북 수요가 늘어나면서 '21년 노트북 패널 시장(2억 4,940만 대, 10.5%↑)은 사상 처음으로 2.4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TrendForce, '21.3월)
  - 통상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이나 올 1분기(6,350만 대)에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하며 무려 46.5% 상승. 이에 따라 패널 업체들은 노트북용 패널 수요를 겨냥한 전략을 구사
  - (CEC판다) '20.9월 8.5세대, 8.6세대 LCD 공장 두 곳을 BOE에 매각한 동 사는 남아있는 6세대 공장 일부를 노트북용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1.2분기부터 11.6인치 패널 양산에 돌입할 계획
  - (HKC) '21.2월부터 11.6인치 노트북용 패널을 양산 중인 HKC는 올해 내로 노트북 패널 라인업(13.3인치, 14인치, 15.6인치)을 확대하고 패널 출하량도 1,000만 대를 달성할 계획
  - (LG디스플레이) TV용 LCD 패널 생산을 축소하고 노트북 등의 IT용 LCD 패널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동 사는 IPS 광시야각, 고해상도 등의 고부가가치 노트북 패널을 중심으로 수익성을 도모
  - (삼성디스플레이) LCD 패널에 주력하는 경쟁 업체들과 달리 노트북용 OLED 패널 생산 능력을 보유한 동 사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중심으로 노트북용 패널 시장을 공략할 계획
  - 한편 아직까지 노트북 시장 내 OLED 패널 비중은 미미하나 지난해부터 주요 PC 업체인 레노버, 에이수스, 델, HP 등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을 대거 공개한 만큼 올해 SDC의 고객사 확보 행보와 더불어 노트북 시장 내 OLED 패널 입지 확대가 기대

**그림 1-4 | LCD · OLED 패널 가격 차이(55인치 4K 기준) 및 글로벌 노트북 패널 시장 전망**


자료 : 한국경제, 4.19. (원소스 OMDIA) / TrendForce, 2021.3.

## □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따라 글로벌 업체들의 OLED 패권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

- 국내 업체는 OLED 패널을 중심으로 리더십 확보에 총력, BOE도 OLED 수주 확대에 매진
  - **(삼성디스플레이)** 지난해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스마트폰용 패널 공장을 완공한 동 사는 '21.4월부터 공장 가동을 시작. 생산된 패널은 인근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스마트폰 단일 생산기지 중 최대 규모)에 공급될 예정
    - ※ (참고) 이로써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부품은 물론 완제품까지 양산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전망
  - 또한 동 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QD-OLED 패널은 '21.6월 모니터, TV 시제품 형태로 주요 고객사(삼성전자, 소니, TCL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21.4분기부터는 본격 양산에 돌입할 전망
  - **(LG디스플레이)** 최근 급증한 OLED TV 수요에 대응하며 OLED 대중화 등을 위한 광저우 공장 OLED 생산라인 추가 증설(월 30K 규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
    - ※ 기존 광저우 공장의 OLED 패널 생산량은 월 6만 장, 파주 공장은 월 8만 장으로, LG디스플레이가 추가 증설까지 완료한다면 OLED 패널 월 생산량은 총 17만 대(연간 204만 대) 규모에 이를 전망
  - **(BOE)** '21.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중저가 폰 '갤럭시M' 시리즈 일부 모델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OLED 공급 계약 체결에 성공. 특히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OLED 패널을 납품하게 돼 주목
  - 무엇보다 동 사 OLED 패널에 꾸준히 제기되었던 품질 이슈를 해결하고 저렴한 가격을 강점으로 내세워 강력한 경쟁업체였던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선정되었다는 점에 눈길
    - ※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서 주요 공급업체인 화웨이 등이 타격을 받자, 대안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
  - 지난해 애플용 패널 수주를 따낸 데 이어 올해는 삼성전자의 일부 물량 공급 계약까지 확보하면서 점차 OLED 패널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
    - ※ 한편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견제 행보로 최근 광저우를 중심으로 본격 OLED 패널 생산에 돌입한 LG디스플레이의 타격 가능성에 우려(생산 거점이 중국이란 이유로 수출이 금지될 가능성이 존재). 다만 삼성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의 패널 생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되어 있어 피해가 미미할 전망

## 2) 수출 동향

### □ '21.3월 패널 수출은 7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며 2.9% 증가한 16.9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LCD 패널의 반락에도 불구하고 OLED 패널 및 부분품을 중심으로 성장세 지속
  - (LCD 패널 : 4.9억 달러,  $\Delta 8.5\%$ ) LCD 패널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반도체 품귀현상 등의 영향으로 주요 부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LCD 패널 수출은 5개월 만에 반락
  - (OLED : 8.4억 달러,  $8.5\% \uparrow$ ) 스마트폰, IT 기기, TV 등의 OLED 패널 채용 확대에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7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유지
  - (패널 부분품 : 3.6억 달러,  $8.7\% \uparrow$ ) 편광판(2.7억 달러,  $25.0\% \uparrow$ ) 수요 증가로 LCD 부품(3.4억 달러,  $9.4\% \uparrow$ )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10개월 연속 증가 일로
- **(지역별)** 미국 등은 하락했으나 주요 교역국(중국(홍콩 포함)·베트남 등)의 수출 호조로 성장
  - 중국(홍콩 포함, 8.9억 달러,  $2.5\% \uparrow$ )은 LCD 패널(4.0억 달러,  $3.5\% \uparrow$ )과 부분품 수출(2.5억 달러,  $32.8\% \uparrow$ )이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성장 기록. 다만 OLED 패널 수출(2.4억 달러,  $\Delta 18.0\%$ )이 반락하면서 전체 수출 성장 폭이 한 자릿수 대로 둔화
  - 베트남(6.7억 달러,  $6.2\% \uparrow$ )은 스마트폰용 OLED 패널(5.8억 달러,  $28.4\% \uparrow$ ) 수출 호조로 7개월 연속 상승 가도
  - 미국(0.2억 달러,  $\Delta 19.7\%$ )은 OLED 패널 수출( $\Delta 59.5\%$ )의 하락세와 부분품 수출(0.1억 달러,  $\Delta 35.5\%$ ) 반락으로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표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3
패널	16.4 ( $\Delta 4.4$ )	12.4 ( $\Delta 28.0$ )	12.8 ( $\Delta 21.1$ )	15.0 ( $\Delta 5.3$ )	15.5 ( $\Delta 21.1$ )	18.1 ( $\Delta 16.9$ )	21.1 (2.7)	21.2 (10.6)	21.8 (27.7)	23.9 (31.2)	20.7 (32.1)	16.2 (22.3)	16.9 (2.9)
LCD	5.4 ( $\Delta 26.9$ )	4.4 ( $\Delta 37.4$ )	4.5 ( $\Delta 36.4$ )	4.9 ( $\Delta 26.2$ )	5.5 ( $\Delta 23.4$ )	5.2 ( $\Delta 22.7$ )	5.5 ( $\Delta 3.5$ )	5.3 ( $\Delta 7.9$ )	5.4 (2.4)	6.1 (12.8)	5.3 (10.5)	4.5 (4.6)	4.9 ( $\Delta 8.5$ )
OLED	7.7 (12.5)	5.4 ( $\Delta 25.2$ )	5.9 ( $\Delta 4.1$ )	6.9 (13.4)	6.4 ( $\Delta 28.9$ )	9.5 ( $\Delta 18.9$ )	12.2 (3.3)	12.8 (22.7)	13.4 (46.3)	14.4 (46.0)	12.2 (52.1)	8.4 (32.9)	8.4 (8.5)
부분품	3.3 (12.1)	2.7 ( $\Delta 13.1$ )	2.4 ( $\Delta 20.5$ )	3.2 (2.8)	3.6 (3.7)	3.4 (2.5)	3.4 (11.8)	3.0 (3.6)	3.0 (13.4)	3.4 (15.4)	3.2 (12.3)	3.3 (25.7)	3.6 (8.7)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01.2	21.7	48.9	중국	8.5	2.9	50.5	23.7	15.3	44.2
2	중국	88.5	-18.8	42.7	베트남	6.7	6.2	40.0	25.5	28.7	47.4
3	홍콩	3.9	-18.8	1.9	홍콩	0.4	-5.8	2.2	1.1	13.3	2.1
4	미국	2.2	-3.4	1.1	미국	0.2	-19.7	1.2	0.6	-0.9	1.1
5	멕시코	2.0	-37.5	1.0	멕시코	0.2	11.2	1.2	0.5	6.7	0.9
6	일본	1.3	-47.4	0.6	인도	0.1	123.0	0.8	0.3	47.0	0.6
7	인도	0.7	-12.4	0.4	폴란드	0.1	35.9	0.5	0.2	-4.8	0.3
8	폴란드	0.7	-67.0	0.4	일본	0.1	-51.6	0.4	0.2	-49.0	0.4
9	대만	0.7	-24.6	0.3	헝가리	0.0	12.3	0.3	0.2	16.9	0.3
10	헝가리	0.6	3.5	0.3	대만	0.0	-37.5	0.3	0.1	-26.1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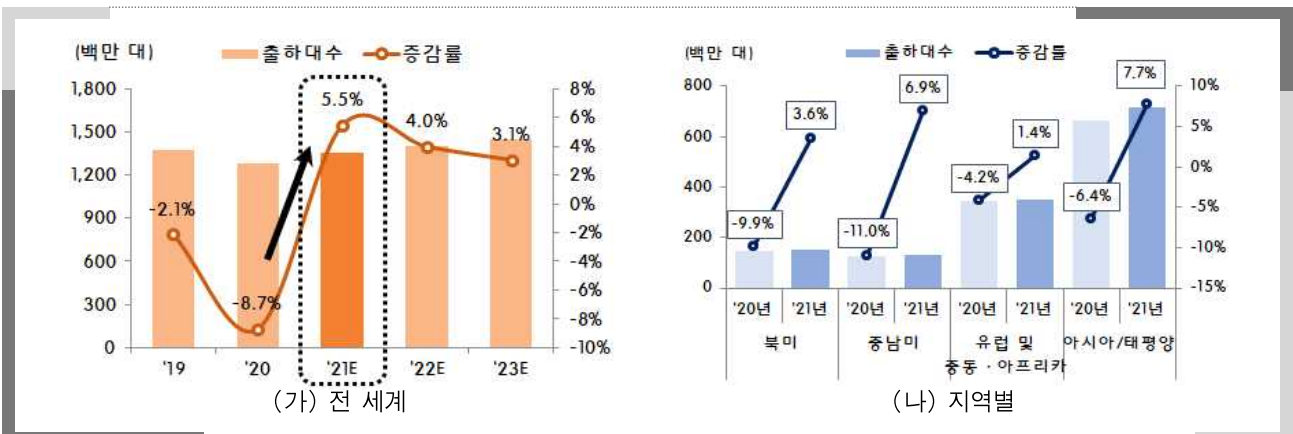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21년 스마트폰 시장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며 5년 만에 회복세로 반등이 예상

- (글로벌) 5G 확산 가속, 기저효과 등으로 13억 5,020만 대를 출하하며 전년 대비 5.5% 증가할 것으로 예측(IDC, '21.3월)
  - 올해는 애플의 5G 제품 확산 가속, 폴더블 등 이형(異形)폰 출시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20년 시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성장 전환이 예상
  - 일각에서는 비대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등 부품 공급 부족 등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제기
    - ※ 코로나19 장기화로 데스크톱·노트북·태블릿 등 PC 및 TV向 반도체의 강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차량용 시장에서도 반도체 확보 경쟁이 발생하면서 부품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부품 조달 차질로 완만한 성장을 예측
  - '22년에는 4.0% 성장한 14억 390만 대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별)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이 회복되면서 '21년에는 전 지역에서 반등이 예상
  - '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전 지역에서 최소 4.2%(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최대 11.0%(중남미)의 하락을 기록
  - '21년에는 위축됐던 수요가 반등하면서 아시아/태평양(7.7%↑), 중남미(6.9%↑), 북미(3.6%↑),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1.4%↑) 등 모든 지역에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특히 '20년 11.0% 감소한 중남미는 '21년 6.9% 증가가 예상되면서 가장 큰 폭(17.9%p)의 성장 반등이 예측

그림 1-6 전 세계 및 지역별 스마트폰 출하 전망



자료 : IDC, 2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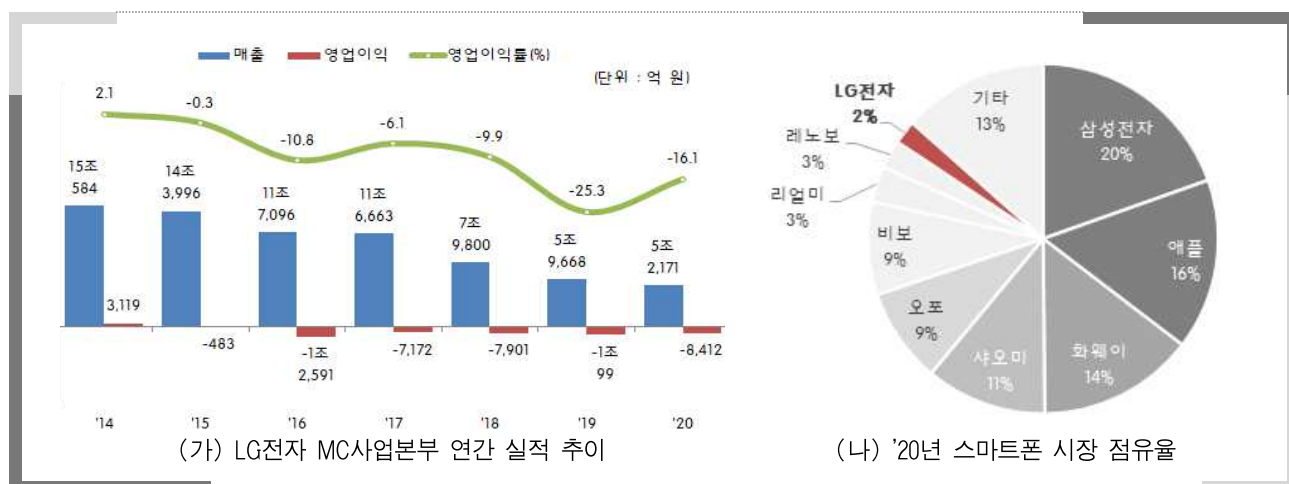
## □ '21.1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이 관측되는 가운데 상위권 업체의 비중이 증가

- 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수요 회복 등으로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상위 5개 업체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세가 관측(SA, '21.4월)
- '21.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35%↑) 시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4% 늘어난 3억 4,000만 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
- 삼성전자(7,700만 대, 32%↑)·애플(5,700만 대, 44%↑)·샤오미(4,900만 대, 80%↑)·오포(3,700만 대, 68%↑)·비보(3,700만 대, 85%↑) 등 상위 5개 업체 점유율은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전체 시장의 77%(전년 대비 약 7%p↑)를 장악한 반면 5위권 이하 업체 비중은 23%에 불과

## □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 확정...북·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변화 예상

- LG전자는 '21.7.31일자로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 사업 부문의 영업 정지를 공시(4.5일)
- 스마트폰 사업의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경쟁 확대로 입지가 점차 축소되면서,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21.1.20일)한 바 있으며, 이후 두 달여 만에 완전히 철수하기로 확정
  - ※ LG전자 MC사업본부는 '15.2분기~'20.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이어왔으며 '15년~'20년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에 육박. 또한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애플,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에 밀려 '20년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대로 부진했던 상황
- 구글, 폭스바겐, 베트남 빈 그룹 등이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며 분리 매각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매각 가격과 R&D 특허권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철수로 결정
  - ※ 한편 일각에서는 4G/5G 관련해서만 2만 4,000건의 표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가치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 분야 특허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매각이 아닌 철수를 선택했다는 해석도 제기

그림 1-7 LG전자 MC사업본부 연간 실적 및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자료 : LG전자 각 년 발표자료 / SA, 2021.1.

-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라 AI 기반 가전과 미래차 전장 분야로 역량을 집중하는 가운데 로봇 등 신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전사적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가속화. 또한 스마트폰 사업 종료 후에도 핵심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지속한다는 구상

※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6G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특허·인력 등 통신 역량을 IoT·AI·커넥티드카·로봇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

- LG전자는 MC 사업 종료에 따른 협력사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생산을 당분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 생산라인의 용도변경 및 매각 등도 진행할 전망

- LG전자는 통신사업자 등 거래선에 계약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21.5월까지 스마트폰 생산을 지속하는 가운데 사업 종료에 따른 거래선·협력사 등의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LG전자/LG계열사 수요 등을 고려,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700여명의 스마트폰 부문 직원 고용을 유지할 계획

- 또한 스마트폰 생산 중단에 따라 LG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브라질·중국 등 해외 생산라인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

※ LG전자는 현재 베트남·브라질·중국 등에 해외 스마트폰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 생산비중이 높음

-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따른 LG전자의 해외 생산라인 대응 및 계획

-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 스마트폰 공장을 연내 냉장고 등 생활가전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고 인력 재배치를 완료한 뒤, 이후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

※ '15년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하이퐁 공장은 스마트폰·TV·백색가전 등을 생산. 현재 이 캠퍼스에는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공장도 함께 위치해 있으며 1만 6,00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

-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브라질 타우바테 공장은 2개월 후 스마트폰 생산이 중단되고 컴퓨터·모니터 등은 브라질 마나우스 공장으로 이전될 예정. 중국 공장에서도 생산이 종료될 전망

※ 사업 철수에 따라 중국 공장에서는 보상 합의가 대부분 완료됐으나 브라질 타우바테 공장의 생산 직원들과는 보상에 대한 의견차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는 등 협상에 난항

- 한국 및 북·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모바일 사업을 운영해 온 LG전자의 부재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삼성전자·샤오미·모토로라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

-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의 점유율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동 사 스마트폰 판매량 가운데 북미와 중남미 등에서의 판매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

- 특히 LG전자가 점유율 9%를 차지했던 북미에서는 삼성전자가 중저가 '갤럭시A 시리즈'를 통해 점유율 일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LG전자와 유사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모토로라·HMD·ZTE·알카텔 등도 수혜 대상으로 관측

※ '20.4분기 LG전자의 휴대폰 가격대별 판매 비중(도매가 기준)은 500달러 이상 고가 모델이 5%로 전년 동기대비 5%p 감소한 반면 500달러 이하 중저가·저가 모델은 각각 2%p 증가하는 등 대체로 중저가 위주로 판매

## 2) 수출 동향

### □ 완제품은 감소했으나 부분품 호조로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한 11.0억 달러 기록

- (품목별) '21.3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이 하락세로 반전했으나 카메라모듈 등 부분품 수출 호조세로 5개월 연속 성장세를 달성
  - (휴대폰 완제품 : 4.4억 달러,  $\Delta 9.6\%$ ) 국내 업체의 신제품 조기 출시('21.1월 갤럭시S21 시리즈 등 출시) 효과 둔화와 더불어 기저효과('20년엔 3월에 갤럭시S20 시리즈 등 신제품 출시)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 그러나 4억 달러 대의 견조한 실적을 지속
  - (휴대폰 부분품 : 6.7억 달러,  $25.4\% \uparrow$ ) 글로벌 업체向 부품 공급 확대 등 해외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카메라 모듈, PBA 모듈 등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호조세 지속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3.5억 달러,  $67.0\% \uparrow$ ), 베트남(2.1억 달러,  $\Delta 10.2\%$ ), 브라질(0.1억 달러,  $\Delta 30.9\%$ )
- (지역별)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중국(홍콩 포함)·EU 등으로는 선전
  - 중국(홍콩 포함, 3.7억 달러,  $59.0\% \uparrow$ )은 완제품( $\Delta 9.7\%$ ) 수출이 감소했으나 현지 및 글로벌 업체向 공급 증가로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 $67.0\% \uparrow$ )이 크게 늘어나면서 7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EU(2.2억 달러,  $410.7\% \uparrow$ )는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으로 완제품( $650.3\% \uparrow$ ) 수출 호조와 더불어 부분품( $62.8\% \uparrow$ )이 동반 성장하면서 세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 지속
  - 베트남(2.2억 달러,  $\Delta 10.0\%$ )은 RFIC 등은 증가했으나 카메라모듈, PCB 등 부분품( $\Delta 10.2\%$ )과 완제품( $\Delta 13.7\%$ )이 동반 감소하면서 2개월간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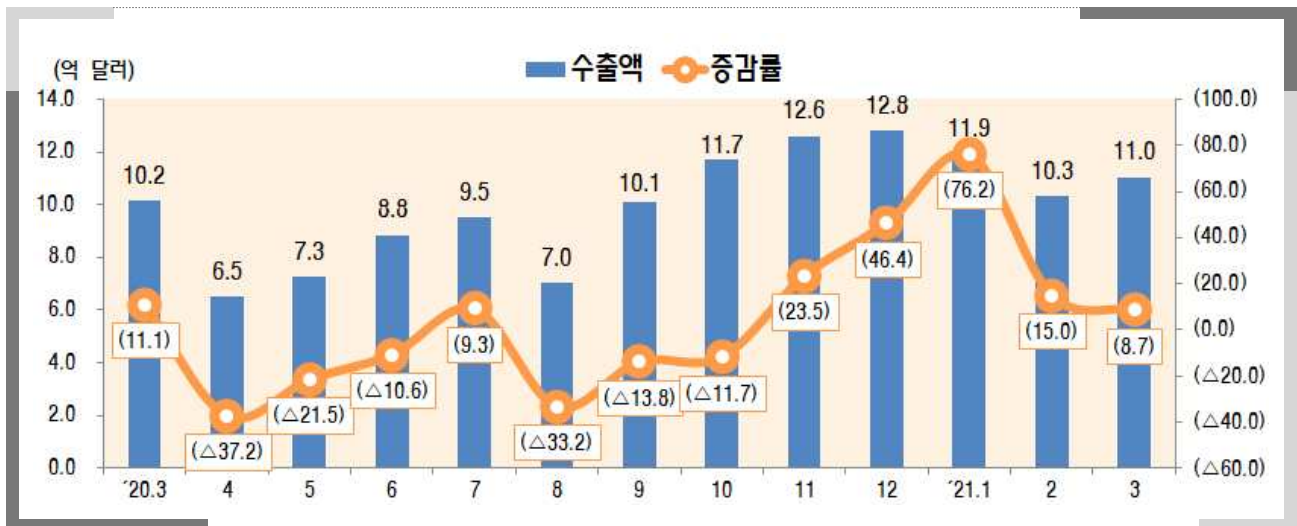
표 1-7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3
휴대 단말기	10.2 (11.1)	6.5 ( $\Delta 37.2$ )	7.3 ( $\Delta 21.5$ )	8.8 ( $\Delta 10.6$ )	9.5 (9.3)	7.0 ( $\Delta 33.2$ )	10.1 ( $\Delta 13.8$ )	11.7 ( $\Delta 11.7$ )	12.6 (23.5)	12.8 (46.4)	11.9 (76.2)	10.3 (15.0)	11.0 (8.7)
완제품	4.8 (20.8)	3.0 ( $\Delta 43.6$ )	3.4 ( $\Delta 15.4$ )	3.7 ( $\Delta 24.4$ )	3.8 (20.6)	2.0 ( $\Delta 39.8$ )	3.3 (32.6)	3.7 ( $\Delta 16.8$ )	4.0 (16.8)	3.1 ( $\Delta 11.3$ )	3.8 (87.4)	4.3 (5.2)	4.4 ( $\Delta 9.6$ )
부분품	5.3 (3.6)	3.5 ( $\Delta 30.5$ )	3.8 ( $\Delta 26.2$ )	5.2 (2.7)	5.7 (2.7)	5.1 ( $\Delta 30.3$ )	6.9 ( $\Delta 26.1$ )	8.0 ( $\Delta 9.2$ )	8.6 (26.9)	9.7 (85.1)	8.1 (71.4)	6.0 (23.3)	6.7 (25.4)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31.9	15.9	28.4	중국	3.4	67.5	31.0	10.2	108.4	30.7
2	중국	29.1	7.0	25.9	베트남	2.2	-10.0	19.5	7.3	-2.0	22.0
3	미국	25.0	-30.4	22.2	미국	1.1	-70.0	9.8	6.3	-23.5	18.9
4	영국	3.9	218.5	3.5	영국	0.9	1441.1	7.8	1.5	765.3	4.5
5	홍콩	3.8	8.8	3.3	독일	0.6	529.5	5.1	1.3	224.7	4.0
6	독일	2.7	-7.8	2.4	스페인	0.3	1323.7	3.1	0.5	751.8	1.6
7	일본	2.0	18.2	1.8	홍콩	0.3	2.3	2.8	0.8	7.4	2.5
8	캐나다	1.9	-57.0	1.7	스웨덴	0.3	1633.8	2.6	0.4	951.5	1.2
9	브라질	1.3	33.2	1.1	오스트리아	0.3	513.8	2.3	0.3	178.4	0.9
10	인도	1.1	25.9	1.0	UAE	0.2	36.7	2.3	0.4	14.9	1.2

자료 : IITP, KTSPI

## 1) 수출 환경

### □ 올해 TV 시장(2억 2,309만 대, $\Delta 1.0\%$ )은 상고하자 양상을 보이며 소폭 감소 전망

○ (시장 전망) '21.상반기는 코로나19發 수요가 이어지면서 호조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는 작년 수요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 전망

- 지난해 하반기에 급증한 집콕 수요가 지속되면서 '21.1, 2분기까지는 성장세 기대. 다만 3, 4분기는 상반기에 비해 출하량은 늘어나겠으나 전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21년 글로벌 TV 시장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

※ 분기별 글로벌 TV 시장 전망(한국경제, 3.23일, 원소스 OMDIA) : ('21.1Qe) 5,025만 대, 7.8%  $\uparrow$  / (2Qe) 4,895만 대, 7.3%  $\uparrow$  / (3Qe) 5,530만 대,  $\Delta 12.0\%$  / (4Qe) 6,860만 대,  $\Delta 2.3\%$

-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TV 시장의 정체기가 지속된 점을 감안하여 올해 TV 시장 전망에 대해 역성장의 의미보다 지난해 수준의 호황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해석이 다수

○ 한편 전체 TV 시장의 흐름과 달리 프리미엄 TV 시장은 고성장세가 뚜렷할 것으로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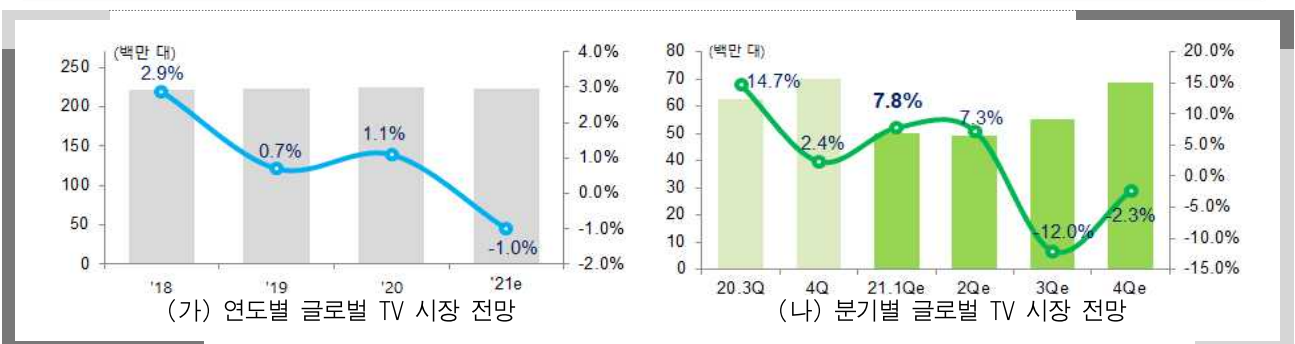
- (OLED TV) '21년 글로벌 OLED TV 시장은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 특수를 발판삼아 전년 대비 60%가량 늘어난 58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매일일보, 4.7일, 원소스 OMDIA)

※ '20.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LGD의 中 광저우 공장이 하반기부터 다시 정상화되면서 OLED 패널 공급이 증가하며 TV 시장 성장에 일조

- 분기별로는 '21.1분기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12만 대를 출하할 것으로 추산되며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2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ZDNet Korea, 4.12일, 원소스 OMDIA)

- (QLED TV) 마찬가지로 올해 QLED TV 시장도 전년 대비 26% 증가한 1,200만 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21년 프리미엄 TV 시장의 호황이 기대

그림 1-9 연도별 및 분기별 글로벌 TV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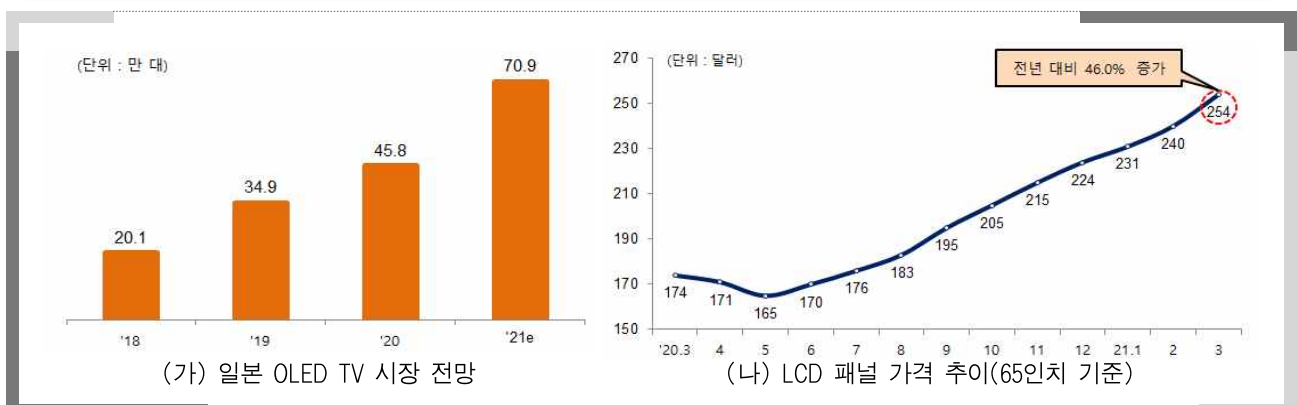
자료 : 한국경제, 3.23.(원소스 OMDIA)



## □ 일본의 OLED TV 시장 성장에 눈길, 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

- (일본 시장) '21.3분기 일본 TV 시장 内 OLED TV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할 전망
  - 올해 일본 内 OLED TV 시장은 도쿄 올림픽 개최, OLED TV 평균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4.8% 성장한 70.9만여 대 규모에 이를 전망(매일경제, 4.9일, 원소스 OMDIA)
    - ※ 일본의 OLED TV 평균 판매가격은 '18년 2,825 달러에서 '20년 2,216 달러로 하락
  - 일본 전체 TV 매출액 중에서도 OLED TV 비중이 '20.3Q 22%→ '21.3Qe 30.5% 수준으로 사상 처음 30% 대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며 일본 内 OLED TV 확산 속도 가속화도 기대
- (업체 동향) LCD 패널 가격 고공행진의 악영향을 타파하기 위해 수익률 개선 방안 마련에 총력
  - (삼성전자) 차세대 QD-OLED TV 출시 이전의 과도기 주력 제품으로 '네오 QLED TV'를 출시('21.3월)했으나 최근 원재료인 LCD 패널 가격의 상승, 디스플레이 구동 칩(DDI)<sup>5)</sup> 부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QD-OLED로의 전환을 서두름과 동시에 최근 LG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관측. 수익률 개선 방안 강구를 위한 동 사의 이례적 행보에 눈길
    - ※ 비록 양사 간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가 고수해왔던 OLED TV에 대해 강경한 회의적 입장을 잠시나마 재고했던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 해결책 마련에 집중하는 모양새
  - (LG전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동 사는 '21.4월 출시 예정이었던 'QNED TV' 출시 일정('21.5월)을 한 달 이상 연기키로 결정
  - 또한 현재 부품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OLED TV 판매에 집중할 계획
  - 4.19일 명품 보석 브랜드 '불가리(BVLGARI)'와 초프리미엄 TV인 '시그니처 올레드 R' 마케팅을 진행. 해당 마케팅은 최상위 고객(VVIP)을 겨냥했으며 고객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

**그림 1-10 | 일본 OLED TV 시장 전망 및 LCD 패널 가격 추이(65인치 기준)**



자료 : 매일경제, 4.9. (원소스 OMDIA) / OMDIA, 2021.3.

5) DDI(Display Driver IC) : TV 화면을 구동하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인 빛 에너지로 변환하는 등의 역할





## 2) 수출 동향

## □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부분의 생산을 해외 생산 거점에 의존함에 따라 TV 수출 부진은 지속

- (품목별) OLED TV 수출 하락이 본격화된 '20.11월을 기점으로 전 품목 하락세가 5개월 연속 지속
  - (LCD TV : 0.02억 달러, △93.4%)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수출국이 중동에서 미국·동남아시아 등으로 변화하면서 LCD TV 수출 감소세가 90%대를 지속 중인 상황. '21.3월 수출은 미국 (66.9%↑)·태국(905.6%↑) 등은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인도·싱가포르 등의 감소로 하락 기록
  - (OLED TV : 0.01억 달러, △89.1%) 영국(1,081.2%↑)·러시아(10.0%↑)·프랑스(311.6%↑) 등의 유럽 국가로의 수출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주요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52.5%) 등의 내림세로 감소 관측
  - (부분품 : 1.0억 달러, △24.3%) 베트남·브라질 등으로의 수출 부진 장기화로 감소세가 지속
- (국가별) 멕시코·폴란드·미국 등의 수출은 호조세인 반면 베트남·브라질 등은 악화가 지속
  - 프리미엄 북미 지역의 핵심 거점인 멕시코(0.5억 달러, 8.4%↑)와 유럽 지역의 주요 거점인 폴란드 (0.2억 달러, 47.8%↑)는 부분품을 중심으로 상승세 관측
  - 반면 베트남(0.1억 달러, △61.4%)과 브라질(0.1억 달러, △14.3%)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12개월 이상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부진이 장기화되는 양상
  - 인도네시아(34.5%↑)는 OLED TV에 주력 중인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 이전에 따라 부분품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유지

표 1-9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3
D-TV	1.8 (△35.9)	0.7 (△76.7)	1.0 (△68.1)	1.8 (△47.0)	1.8 (△38.1)	1.4 (△45.6)	1.2 (△41.3)	0.9 (△59.2)	0.7 (△64.9)	0.7 (△55.5)	0.8 (△46.7)	0.9 (△36.2)	1.1 (△42.2)
LCD TV	0.4 (△15.3)	0.2 (△50.9)	0.2 (△49.9)	0.3 (△12.0)	0.2 (△37.7)	0.1 (△62.3)	0.0 (△94.4)	0.0 (△91.2)	0.0 (△95.5)	0.0 (△95.3)	0.0 (△93.3)	0.0 (△93.0)	0.0 (△93.4)
OLED TV	0.1 (28.6)	0.1 (17.2)	0.1 (△13.0)	0.1 (116.5)	0.1 (87.3)	0.1 (4.3)	0.1 (△2.9)	0.1 (10.3)	0.0 (△74.7)	0.0 (△79.7)	0.0 (△92.9)	0.0 (△89.9)	0.0 (△89.1)
부분품	1.4 (△42.3)	0.3 (△85.3)	0.7 (△72.3)	1.4 (△53.7)	1.4 (△41.6)	1.2 (△44.8)	1.1 (△33.0)	0.7 (△59.0)	0.7 (△59.8)	0.7 (△48.4)	0.8 (△28.0)	0.8 (△13.6)	1.0 (△24.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3.4	-60.7	22.9	멕시코	0.5	8.4	43.2	1.0	12.6	36.9
2	베트남	1.7	-48.8	11.2	폴란드	0.2	47.8	14.2	0.4	59.4	16.0
3	폴란드	1.4	26.0	9.5	베트남	0.1	-61.4	9.0	0.2	-54.4	9.1
4	브라질	1.0	-56.5	7.1	브라질	0.1	-14.3	7.1	0.2	-23.3	7.4
5	이집트	0.7	-53.4	4.6	미국	0.0	14.4	4.2	0.1	-19.0	4.4
6	UAE	0.6	-17.9	4.4	인도네시아	0.0	34.5	3.8	0.1	77.4	4.4
7	일본	0.5	-25.6	3.7	아르헨티나	0.0	71.4	3.2	0.1	99.7	3.4
8	인도	0.5	-8.6	3.4	이집트	0.0	-71.7	2.8	0.1	-62.1	3.5
9	인도네시아	0.5	6.7	3.1	인도	0.0	-28.8	2.3	0.1	-22.1	2.4
10	홍콩	0.4	-31.2	3.0	러시아연방	0.0	-12.5	2.2	0.1	-27.3	2.6

자료 : IITP, KTSPI

##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본격 자리 잡은 올 PC 시장은 긍정적 기조 지속 전망

- (시장 전망) '21년 글로벌 PC 시장(3억 5,740만 대, 18.2%↑)은 두 자릿수 대의 성장이 기대
  -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재택근무, 온라인 회의, 원격 수업 등이 일상화된 올해는 지난해 미충족된 비대면 PC 수요가 이어지면서 상승가도를 보일 전망
    - ※ 다만 일각에서는 '21.상반기까지 강한 PC 수요 추이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반도체 품귀 현상 등의 변수로 인한 PC 수요 둔화 가능성을 전망
- (업체 동향)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에 최적화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해 눈길
  - (HP) '인텔 11세대 타이거레이크 i5 CPU'가 탑재된 가성비 노트북 'HP 250 G8' 시리즈를 출시 (4.1일). 전 세대 대비 디자인,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HP True Vision HD 카메라와 듀얼 디지털 마이크를 탑재해 최근 사용 빈도가 높은 영상 회의 시 선명한 영상·음성 제공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
  - (화웨이) 프로세서부터 OS까지 오로지 자국에서만 생산한 부품을 탑재한 노트북 '칭윈 L410'의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 프로세서는 자사의 스마트폰 '메이트30' 시리즈에 채용된 '기린990'을, OS는 중국 내 기업들과 연합해 개발한 'UOS6)'를 적용할 전망
  - (MSI)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투인원(2 in 1) 노트북 'Summit Flip'을 출시(4.2일). 화면비를 16:9→16:10으로 가시 영역도 10% 더 확장해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
  - 해당 제품은 인텔 11세대('타이거레이크') CPU를 탑재하고 '인텔 이보(EVO) 플랫폼' 인증도 획득. 또한 4,096 필압과 166도 기울기를 인식해 실제 펜과 같은 느낌을 지원하는 MSI 펜도 선보여 주목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MSI 신제품 이미지



자료 : IDC, 2021.3. / 언론 자료 인용

6) UOS(Unity operating system) : '19.11월 중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이 연합해 설립한 유니온테크가 개발한 OS

## □ 올해 태블릿PC 시장은 코로나19發 단발성 수요가 차츰 충족되면서 감소세로 재진입 전망

- (시장 규모 및 전망) '20년 글로벌 태블릿PC 시장(1억 6,350만 대, 13.2%↑)은 큰 폭 성장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의 수요로 '20.2분기부터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20년 시장은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IDC, '21.3월)
    - ※ 지난해 태블릿PC 시장은 '20.1Q(△14.8%), 2Q(19.1%↑), 3Q(24.5%↑), 4Q(19.6%↑)로 격변의 시기 관측
  - 반면 올해(1억 5,950만 대, △2.4%)는 전년 기저효과, 수요 충족 등으로 태블릿PC 시장이 소폭 위축되면서 하락 전환할 것으로 관측. 슬레이트 제품(8,900만 대, △5.1%)이 내림세를 주도
    - ※ 다만 키보드가 분리되는 디태처블 태블릿PC(7,050만 대, 1.2%↑)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22년(1억 4,810만 대, △7.2%)부터는 태블릿PC 수요가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다시 이전되면서 시장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
- (업체 동향) 4.20일 애플은 11인치, 12.9인치로 구성된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신제품을 행사에서 공개. 자체 개발한 'M1'칩 탑재는 물론 이미지 처리 프로세서(ISP)도 적용해 화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
  - ※ 고성능 노트북급 CPU 탑재로 PC 사양을 넘보는 수준의 신제품 등장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
- 특히 12.9인치 제품의 경우 밝기·명암비·색상 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애플의 기술이 적용된 최상급 디스플레이 '리퀴드 레퀴나 XDR'가 장착돼 주목
- 또한 USB-C 단자를 썬더볼트4, USB4로 업그레이드 해 한층 더 노트북의 영역에 다가선 것으로 관측되며 일각에서는 노트북('아이맥' 등)에서 아이패드로의 수요 이전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 추측 제기
-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라인업 확대 전략을 구사해 '21.6월 '갤럭시탭S7 라이트'와 보급형 '갤럭시탭A7 라이트'를 선보일 것으로 관측

## □ (SSD) 코로나19로 촉발된 SSD 시장은 호황, '21년에도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 (시장 전망) '21.2분기 주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의 수요 회복 등으로 SSD 가격 상승이 기대
  - 지난해에 이어 올해 SSD 시장도 소비자용·기업용 제품의 높은 수요가 이어지면서 출하량(4억 328만 대, 10.5%↑)과 매출액(344.2억 달러, 2.8%↑)이 동반 성장할 전망(IDC, '20.12월)
  - (소비자용)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콘솔 기기, 개인 PC용 SSD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출하량(3억 3,689만 대, 11.2%↑)과 매출액(172.5억 달러, 8.3%↑) 모두 상승세가 기대
  - (기업용) 정형·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해 글로벌 IT 업체들의 '21.상반기 데이터 센터 구축이 활발해지면서 출하량(5,130만 대, 6.1%↑)은 성장 전망되나 SSD 가격의 재하락으로 매출액(167.9억 달러, △2.6%)은 내림세가 예측(IDC, '20.12월)
    - ※ 다만 현 시점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원재료 낸드플래시의 가격 반등세가 뚜렷해지면서 매출액 기준 SSD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존재

## □ (모니터)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게이밍 모니터에도 눈길

- (시장 규모 및 전망) '21년 모니터 시장은 PC 시장과 비례 성장하며 1.5억 대 수준에 육박할 전망
  - 지난해 모니터 시장은 디스플레이 부품 부족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수요로 인해 8.3% 성장한 1억 3,662만 대 규모를 형성.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 ※ 특히 '20.4분기 모니터 출하량(3,924만 대, 16.9%↑)은 '11.4분기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주목
  - '21년 게이밍 모니터 시장(1,970만 대, 37.8%↑)도 큰 폭의 상승세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며 '25년에는 2,350만 대 수준('20~'25년 연평균 성장률 10.5%)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경쟁 현황) '20년 글로벌 모니터 시장에서 Dell(2,643만 대, △0.1%)은 보합세를 보이며 19.3%로 1위를 차지. 그 뒤를 이어 TPV(1,925만 대, 9.3%↑)가 14.1%, HP(1,850만 대, △0.7%) 13.5%, Lenovo(1,436만 대, 6.4%↑) 10.5%로 각각 2, 3, 4위를 기록
- 한편 삼성전자(1,175만 대, 30.6%↑)는 8.6%의 점유율로 5위에 머물렀으나 상위 업체 중 가장 큰 폭의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눈길. 코로나19 수요 급증에 적시 대응한 것으로 분석
- (업체 동향) 재택근무 등의 환경에 적합한 신제품을 출시, 사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주력
  - (Dell) 재택근무, 영상 회의 등에 최적화된 '델 34 커브드 비디오 컨퍼런싱 모니터'를 출시('21.2월). 해당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인증을 취득한 모니터로 '윈터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버튼'을 누를 경우 즉시 영상 회의 등에 접속이 가능. 핸드프리 명령 등도 모니터 내장 마이크를 통해 지원해 눈길
    - ※ 코로나19로 헤드폰 제조업체들이 팀즈 버튼을 헤드폰에 추가한 사례는 있으나 모니터에 탑재된 것은 최초로 주목
  - (삼성전자) 사무 환경에 적합한 고해상도 모니터 3개 시리즈(S8·S7·S6) 총 10개 모델을 순차적 출시('21.3월). 멀티태스킹 사용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들의 QHD급 이상의 고해상도 요구를 충족
  - 또한 S6시리즈의 경우 QHD(2,560×1,440) 해상도와 화면을 분할해 사용 가능한 PBP(Picture By Picture), 화면 안에 작은 화면을 띄울 수 있는 PIP(Picture In Picture) 기능 등을 지원해 효율성을 제고

그림 1-13 | 글로벌 모니터 시장 전망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IDC, 2021.3.



## 2) 수출 동향

### □ '21.3월 수출은 보조기억장치를 중심으로 한 주변기기 수출 반등으로 성장 전환

- (품목별) SSD 수출 호조로 '21.3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6.7% 증가한 13.1억 달러를 시현
  - (컴퓨터 : 1.8억 달러, 21.4%↑) 완제품(소형·중대형)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품(1.5억 달러, 36.2%↑) 수출이 상승 가도를 유지하면서 컴퓨터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 일로
  - (주변기기 : 11.3억 달러, 4.7%↑) 모니터(0.6억 달러, △21.2%) 수출의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프린터는 수출 호조를 기록. SSD(9.1억 달러, 7.5%↑) 수출도 반등하며 주변기기 수출 성장을 주도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미국 등의 수출은 반짝 상승한 반면 일본 등은 하락세가 지속
  - 중국(홍콩 포함, 4.9억 달러, 3.1%↑)은 SSD 수출(3.3억 달러, △6.2%) 하락세가 둔화되고 컴퓨터 수출(1.4억 달러, 33.3%↑)이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상승세로 재진입
  - 미국(3.9억 달러, 10.4%↑)은 컴퓨터(0.1억 달러, △43.4%)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SSD 수출(3.2억 달러, 7.4%↑) 호조와 프린터(0.1억 달러, 116.7%↑) 수출의 높은 성장세로 반등
  - 일본(0.8억 달러, △25.3%)은 저장매체 수출(0.5억 달러, △36.8%)의 큰 폭 감소, 컴퓨터 수출(0.1억 달러, △33.9%)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2개월 연속 내림세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3	4	5	6	7	8	9	10	11	12	'21.1	2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3 (77.5)	10.8 (85.2)	12.1 (72.4)	12.6 (83.1)	12.1 (68.7)	13.4 (98.1)	12.9 (62.7)	10.0 (5.8)	10.4 (4.4)	11.5 (13.5)	9.9 (2.6)	10.7 (△5.6)	13.1 (6.7)
컴퓨터	1.5 (△19.3)	1.5 (△6.5)	1.7 (0.2)	1.7 (13.2)	2.0 (16.4)	1.7 (19.5)	2.0 (30.0)	1.8 (12.0)	2.0 (25.8)	2.1 (19.8)	1.6 (23.4)	1.5 (16.6)	1.8 (21.4)
부품	1.1 (△21.2)	1.3 (△1.5)	1.5 (5.4)	1.4 (23.0)	1.6 (19.1)	1.5 (24.9)	1.7 (48.9)	1.5 (11.5)	1.7 (34.8)	1.7 (37.3)	1.4 (25.9)	1.3 (23.4)	1.5 (36.2)
주변기기	10.8 (112.9)	9.3 (120.2)	10.4 (95.5)	10.9 (103.0)	10.1 (85.3)	11.6 (119.5)	10.9 (70.4)	8.2 (4.6)	8.4 (0.4)	9.4 (12.2)	8.3 (△0.7)	9.2 (△8.5)	11.3 (4.7)
보조기억장치	8.5 (174.9)	8.3 (250.4)	9.6 (160.2)	9.7 (152.2)	8.4 (123.5)	10.2 (165.9)	9.5 (97.6)	6.8 (11.3)	6.9 (7.3)	8.0 (21.9)	7.0 (1.9)	7.8 (△6.1)	9.2 (7.6)
프린터	0.3 (△28.6)	0.3 (△8.7)	0.2 (△40.3)	0.3 (△14.3)	0.3 (△23.4)	0.3 (△12.3)	0.4 (4.8)	0.3 (1.1)	0.3 (△0.6)	0.3 (3.8)	0.3 (19.6)	0.3 (30.2)	0.4 (26.7)
모니터	0.7 (△17.1)	0.4 (△54.6)	0.3 (△65.1)	0.3 (△54.9)	0.4 (△50.7)	0.4 (△45.0)	0.4 (△36.7)	0.4 (△47.0)	0.5 (△41.6)	0.5 (△32.7)	0.4 (△44.0)	0.5 (△28.3)	0.6 (△21.2)

자료 : IITP, KTSPI





그림 1-1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5.3	95.8	32.6	미국	3.9	10.4	29.8	9.5	-8.2	28.3
2	중국	41.1	28.6	29.6	중국	3.8	20.7	28.8	10.0	5.4	29.5
3	홍콩	12.5	77.9	9.0	홍콩	1.1	-30.7	8.6	3.0	-10.3	8.8
4	일본	5.0	46.1	3.6	일본	0.8	-25.3	6.1	1.6	-23.3	4.7
5	멕시코	3.5	54.3	2.5	멕시코	0.5	66.9	3.7	1.3	64.4	3.9
6	대만	3.2	130.3	2.3	대만	0.5	104.6	3.7	1.2	81.5	3.6
7	네덜란드	3.0	47.2	2.1	네덜란드	0.3	49.3	2.3	0.9	47.0	2.6
8	독일	2.6	46.1	1.9	독일	0.2	20.0	1.6	0.5	5.4	1.5
9	체코	2.3	211.6	1.7	싱가포르	0.2	-6.5	1.5	0.6	13.0	1.7
10	오스트리아	2.2	93.4	1.6	오스트리아	0.2	5.3	1.4	0.8	48.7	2.2

자료 : IITP, KTSPi

## 7 SW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SW 시장이 성장가도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국내도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시장 전망) '21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비대면 관련 수요와 더불어 신규 시장 확산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 3,973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가 전망(IDC, '21.1월)
  - (IT서비스 : 7,177억 달러, 1.9%↑) 코로나19로 축소됐던 신규 투자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세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패키지SW : 6,796억 달러, 5.3%↑)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환경 구축에 따른 비즈니스 운영 필수 요소 및 클라우드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한편 사업과 업무 현장에 AI(인공지능)를 적용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글로벌 AI 시장이 급성장하고 IoT(사물인터넷)·VR(가상현실) 등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증가하면서 관련 SW 시장 확대도 기대
- (국내 시장) IT서비스와 패키지SW 시장 성장세가 증가하면서 '21년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6% 늘어난 132억 달러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IT서비스 : 79억 달러, 1.6%↑) 단순 시스템 구축 등 전통 IT서비스 수요는 정체하나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패키지SW : 53억 달러, 4.0%↑) 코로나19로 영상 회의 및 기업용 메신저와 같은 협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4%대의 성장세 지속

그림 1-15 전 세계 및 국내 SW 시장 전망






자료 : IDC Blackbook, 2021.1.

## □ 국내 IT서비스 기업은 '20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 올해는 신규 서비스로 회복 기대

-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3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IT 서비스 수요기업의 투자 축소 및 연기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나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신규 서비스와 물류 매출 확대 등으로 방어
- 올해는 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IT투자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IT서비스 3사는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확대 및 강화하며 시장 회복에 대응한다는 전략

**표 1-13**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실적) 코로나19로 IT투자가 지연되면서 영업이익은 감소했으나 매출은 증가하며 선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은 11조 174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IT서비스 부진 여파로 전년대비 12% 감소한 8,716억 원을 기록</li> </ul> </li> <li>• (향후 전략) 올해는 스마트팩토리, AI 등을 활용해 IT서비스 전 분야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IoT 등 신 기술을 접목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클라우드·물류·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서비스 분야에서 AI,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IT 솔루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 수준 진단 및 컨설팅, 차세대 ERP·SCM 등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클라우드 전환, 스마트팩토리 구축, 차세대 보안, 협업 및 업무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전환 엔진과 업종 솔루션 연계 사업 등을 강화</li> <li>-특히 클라우드 전환 가속화로 보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보안사업 강화에 주력. 암호화 기술을 결합한 AI분석 플랫폼 기반 데이터 보안을 비롯해 비대면 업무, 클라우드,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OT) 관련 보안 사업을 확대할 계획</li> <li>-지난해 높은 매출 성장세로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된 물류 분야에서는 하이테크, 부품, 유통·이커머스 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 유통이력관리 서비스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실적)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사 중 유일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년대비 증가세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액 3조 1,078억 원(2.2%↑), 영업이익 2,106억 원(13%↑)을 기록. 금융·공공 분야 서비스가 선전하는 가운데 스마트 물류 자동화 등 IT신기술 중심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세를 유지</li> <li>※'20년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은 7,600억 원으로 추산, 이 중 LG CNS가 점유율 30%로 시장 1위 달성</li> </ul> </li> <li>• (향후 전략) AI 솔루션 산업화 성과를 다른 분야로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을 적용하는 사업을 본격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계열사 IT시스템의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LG계열사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li> <li>-물류 IT 전문조직 '로지스틱스 DX LAB'를 신설하고 최적화 알고리즘, 디지털 트윈, 물류로봇, 물류IoT 등 물류 특화 IT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등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성장한 스마트 물류 분야의 저변을 확대</li> <li>-세종 스마트시티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박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실적) 코로나19에 따른 수요기업의 투자 축소로 감소했으나 매출액이 2% 감소에 그치며 선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매출 1조 8,000억 원(△2%), 영업이익 1,863억 원(△31.5%)으로 하락했으나 하반기 주요 고객사의 클라우드 전환, 디지털 금융 혁신 사업을 통해 전년 수준의 매출 달성에는 성공</li> </ul> </li> <li>• (향후 전략) 자사와 협력사의 클라우드·빅데이터·AI 기술로 '수직계열화'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전환 실행 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가명 정보 결합과 블록체인 신산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직계열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B2B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멀티클라우드관리 사업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AI·빅데이터·클라우드 주요 플랫폼과 솔루션을 집대성한 통합 디지털 플랫폼 '멀티버스' 서비스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li> <li>-정부 지정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자격을 취득한 이후 데이터결합서비스를 선보이고 '람다256'과 협약을 맺으며 블록체인 대외사업 강화와 더불어 제약분야 클라우드 기반 AI 데이터 분석 기술로 의료·헬스케어 업종의 디지털전환 서비스를 예고한 가운데, 구글 클라우드와 협업해 해외 SaaS 시장 진출도 추진</li> </ul> </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 II 트레이드 GPS<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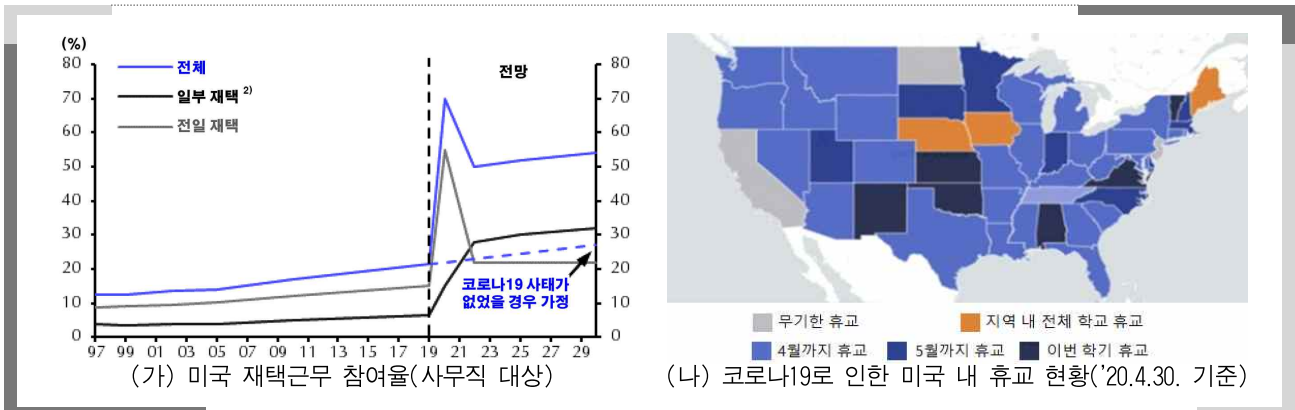
### 1 비대면 시리즈④ 미국 - 가정용전기기기

#### □ 코로나19로 재택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홈 기기 등 미국 가전 수요는 늘어날 전망

- 높은 전염력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美 정부는 '20.3월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에 재택근무·원격수업 등 비대면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면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 (봉쇄 조치)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3월 중순 뉴욕을 포함한 50개 모든 주에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을 폐쇄하는 봉쇄 조치를 시행
  - 약 두 달간의 봉쇄 이후 5.20일부터 봉쇄령을 해제하고 주정부 별로 단계적 경제활동을 재개했으나 미국 내 코로나19가 2·3차 대유행 등으로 재발되면서 자택 대피령 등 주별 봉쇄령을 시행
    - ※ '20.7.13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은 한꺼번에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 11.16일에도 뉴멕시코주와 오리건주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주간의 자택 대피령을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미국 서부 3개 주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여행 경보를 동시에 발령
  - (재택근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가 시행됐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영구전환을 선언하는 등 미국인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확대
    - ※ Twitter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희망자에 한해 영구적 재택근무를 가능케 하는 방침을 발표(5.12일)했으며 Mondelez., Nationwide, Barclay 등 주요 대기업들도 영구적 재택근무 시행 및 사무실 공간 축소 등을 고려
  - 20%를 밀돌던 미국의 재택근무 참여율은 코로나19 이후 약 70% 정도로 확대됐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50% 이상이 지속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국은행, 원소스 Capital Economics)
  - (원격수업) 코로나19로 미국 전역 공립 및 사립학교 대부분이 휴교령을 내리고, 미국 내 90% (5,450만 명)의 취학 연령층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등 재택 시간이 증가
    - ※ 미국은 코로나19로 48개 주, 124,000개의 공립 및 사립학교가 건물 폐쇄 명령 및 권장에 따라 '20.3.5일부터 휴교, 5,450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영향(Education Week)
  - 비대면 환경 변화로 인한 재택 시간 증가로 단순히 주거 공간이었던 집은 직장, 학교, 여가 공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집'에 대한 인식이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면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가정 생활환경 개선 수요가 확대

7)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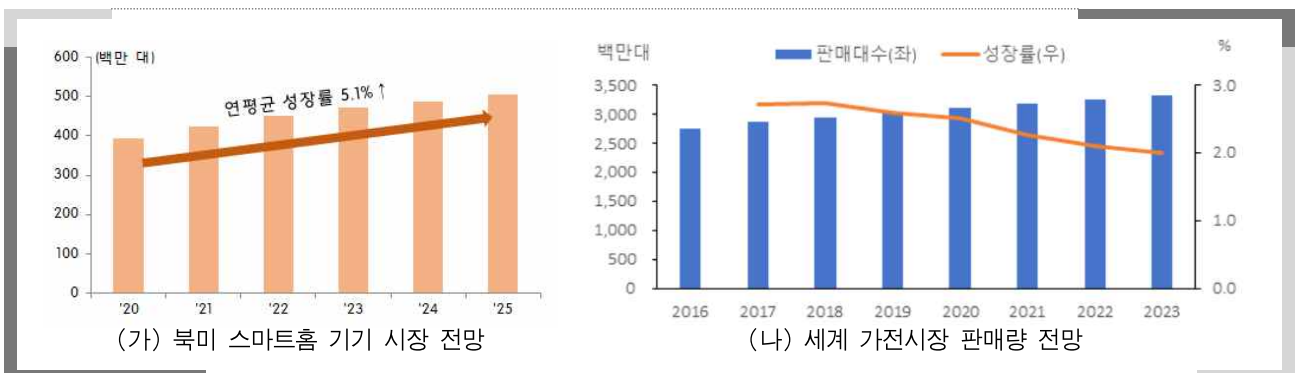
**그림 2-1 미국 재택근무 참여율 추이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현황**



자료: 한국은행(원소스 Capital Economics) / KEDI 재가공(원소스 Education Week, '20.5월)

- 재택시간 확대에 따른 가정 내 생활환경 개선 수요 증가로 미국 가전 시장은 스마트홈 기기, 웰빙 가전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 전방 수요가 미국 내 5G, WiFi6 등 향상된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맞물리면서 스마트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oT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홈 관련 기기 등이 증가할 전망
  - ※ 미국이 포함돼 있는 북미 스마트홈 기기 시장은 '20년 3억 9,260만 대에서 연평균 5.1% 증가해 '25년 5억 430만 대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IDC, '21.2월)
- 한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3.14일 이후 8주간의 미국 공기청정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 100% 증가(NPD 그룹)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및 감염의 우려가 건강, 청결 유지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공기청정기·정수기·스팀클리너·UV살균기·전해수기 등 고부가 웰빙 가전 판매도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에서 안전하게 식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년 미국의 주방용 소형가전 시장은 전년대비 4.6% 성장한 72억 3,110만 달러를 기록(KOTRA, 원소스 유로모니터)
- 미국 가전시장은 성숙 단계에 이르렀으나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기술 혁신, 고객 맞춤형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

**그림 2-2 북미 스마트홈 기기 및 세계 가전 시장 판매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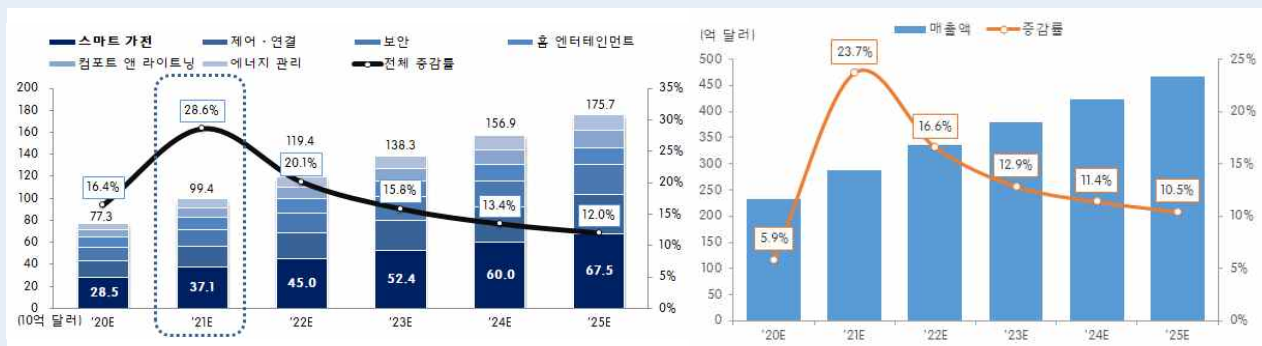
자료 : IDC, 2021.2. / KITA, 2020.7.(원소스 유로모니터)



## □ (참고) 전 세계 및 미국 스마트홈 시장 전망

- (전 세계) '21년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8.6% 증가한 994억 달러로 성장률이 크게 회복될 전망(Statista, '20.11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20년 스마트홈 시장 전망은 기존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됐으나, 16.4%의 여전히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25년까지 연평균 17.8%씩 증가할 것으로 기대
    - ※ '20년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은 코로나 이전 836억 달러(26.9%↑)로 예상됐으나 코로나 이후인 '20.11월 773억 달러(16.4%↑)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Statista)
  - '21년에는 채택 시간 증가 등에 따른 대내 설비·기기의 소비지출 확대에 스마트홈 수요가 늘어나면서 약 30%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며 1,000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라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수요 위축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불확실성도 잔존
  - 세부 분야별('21년 기준)은 스마트가전이 30.2% 증가하며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에너지 관리(31.1%↑), 제어·연결(29.3%↑)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 '20~'25년 미국 스마트홈 시장은 연평균 14.9%의 높은 성장세 예측(Statista, '20.10월)
  - 미국 스마트홈 시장은 '20년 전국 봉쇄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전년대비 5.9% 성장(233억 달러)에 그치나 비대면 환경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더불어 기저효과, 억눌렸던 수요 분출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21년 23.7%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이후에도 현지 5G 서비스 확산에 따라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5년에는 전년대비 10.5% 증가한 468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
    - ※ 미국 5G IoT 시장 규모는 '20년 2.6억 달러에서 연평균 약 70% 증가해 '26년에는 80억 달러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MarketsandMarkets, '21.3월)
  - 한편 '18년 미국 내 스마트홈 보급률은 30%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 확대되면서, '24년에는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반의 미국 가정에 스마트홈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
    - ※ 미국 스마트홈 보급률 추이(%), Statista, '20.10월) : ('18) 30.6→('20) 36.6→('22) 43.7→('24) 52.3

### 〈 세계 스마트홈 세부분야 및 미국 스마트홈 시장 전망 〉





자료 : Statista, 2020.11.

## □ 국내 가전 업체는 현지 시장 공략을 위해 스마트홈 기기를 중심으로 경쟁력 확대

- **(’21.1분기 실적)** 재택 증가로 인한 가전 수요 폭증, 백신 접종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분출 효과 등 글로벌 가전 업계는 최대 호황을 맞이하며 호실적을 달성
  - ’21.1분기 LG전자 생활가전사업부(H&A) 잠정 실적은 매출 6조 원, 영업이익 8,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 미국 가전업체 월풀<sup>8)</sup>의 실적을 넘어섰으며 연간 매출 24조 원 이상으로 선전하며 최대 가전업체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 삼성전자는 생활가전 부문의 실적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TV·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 의료기기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전(CE) 부문 실적은 매출 12조 5,000억 원, 영업이익 1조 원으로 추정. 이는 ’20.3분기 영업이익(1조 5,600억 원) 이후 두 번째 높은 실적으로 시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
- **(국내 업체 동향)** ‘CES 2021’에서 스마트홈 관련 제품을 공개한 가운데 디자인 특화 가전 출시, 현지 특허 출원, 생산라인 증설 등 경쟁력을 확보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총력
  - (CES 2021) ’21.1.11~14일 개최된 ‘CES 2021’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대에 집안 내 다양한 수행을 도와주는 스마트홈 가전이 주요 트렌드로 주목, 관련 제품도 잇따라 공개
  - (미국 특허 출원) 미국 스마트 백색 가전 관련 특허 출원은 ’10년 29건에서 ’19년 175건으로 약 5배 증가한 가운데 ’10~’19년 LG전자(154건, 1위), 삼성전자(86건, 2위) 등 한국 기업이 현지 특허 출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술력을 확보(’20.12월, 특허청)

※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 비중은 스마트 백색가전 분야 전체의 23.6%로, 해외 기업<sup>9)</sup>과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

**표 2-1 | 국내 가전 업체의 가정용전기기기 시장 전략**

업 체	내 용
 <b>삼성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특화 가전) 김치냉장고·인덕션·직화오븐·무선청소기·에어드레서·무풍에어컨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비스포크 홈’을 ’21.3월 공개했으며 ’21.상반기 ‘비스포크’ 디자인을 입힌 가전 신제품 17종을 출시해 주방 중심이던 기존 제품 라인업을 집안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li> <li>• (CES 2021) 집안에 머무는 시간 증가에 따른 게이밍, 헬스, 영화 등 스마트 기능을 대폭 강화한 스마트홈 가전 신제품을 공개. 특히 삼성 헬스의 ‘스마트 트레이너’ 등 트레이닝 서비스 및 재택근무를 위한 스마트 모니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콘텐츠 추천 기능을 강화</li> </ul>
 <b>LG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특화 가전)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융복합 가전 ‘오브제 컬렉션’ 제품군을 워시타워·스타일러·청소기·에어컨·냉장고 등 14종으로 확대. 특히 스타일러·건조기 등 신가전 분야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강화하며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li> <li>• (CES 2021)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을 한층 진화시켜 식품, 애프터서비스 등 다양한 연동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아울러 ‘LG 씽크스 인스타뷰’ 냉장고를 비롯해 트롬 워시타워 세탁·건조기, TV 등이 연결돼 보여주는 스마트홈의 실제 모습을 구현</li> <li>• (생산라인 증설) 미국 시장 가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있는 세탁기 공장에 2,050만 달러를 투자해 생산 설비를 증설한다고 발표(’21.4.15일)</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8)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은 ’21.1분기 매출 53억 5,800만 달러, 영업이익 6억 1,800만 달러를 달성

9) 전통 가전 업체가 아닌 구글(70건)·아마존(44건)·애플(14건) 등 IT 기업의 적극적인 특허 출원도 주목. 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홈 플랫폼과 기존 백색 가전제품을 융합해 구현한 스마트 가전기기 관련 특허 출원이 많으며 향후, 스마트홈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

## □ '21.3월 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39.8% 증가한 2.4억 달러로 10개월 연속 성장

- **(누적)**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시간 증가 등으로 고부가 가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20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21.1분기에도 52%가 넘는 높은 성장세 기록
  - 對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은 '18년 4.4%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국내 업체의 프리미엄 전략 확대 및 비대면 환경 확대를 배경으로 IoT 기능 탑재 가전 수요 증가 등으로 점차 회복되면서 '20년에는 전년 대비 28.4% 증가한 22.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
  - '21.1분기에도 전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수요 분출 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52.1% 증가한 6.3억 달러를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으며 연간으로도 호조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월별)** 현지 정부의 전국 봉쇄 조치('20.3월 중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개월간 부진했으나 봉쇄령 해제('20.5월 말)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 '21.3월 수출액 2억 달러대 재진입
  -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전국 봉쇄령을 시행함에 따라 현지 가전 시장이 위축됐으며 '20.4~5월 미국 가정용전기기기 수출도 감소
  - 5월 말부터 봉쇄 해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지 가전 판매 시장이 점차 회복됐으며, 수출도 6월 회복세로 반등한 이후 '21.3월까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
  - '21.3월 수출은 39.8%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가정용전기기기 수출 중 76%를 차지하는 냉장고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0.4% 증가한 1.8억 달러로 수출 증가를 견인
  - 이어 가정용 회전기기(0.3억 달러, 13.2%↑), 난방 및 전열기기(0.2억 달러, 7.9%↑), 기타 가정용 기기(0.1억 달러, 2.9%↑) 등 대부분의 품목도 선전

그림 2-3 | 對미국 가정용전기기기 누적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2 비대면 시리즈⑤ RFID<sup>10)</sup>

□ 공장 자동화, 효율적 재고관리 등을 위한 필수 기술 RFID는 최근 다양한 산업 및 서비스 분야로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글로벌 RFID 시장은 '21년 107억 달러 → '26년 174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10.2%)로 성장할 전망(MarketsandMarkets, '21.2월)
  - RFID는 안테나와 칩으로 구성된 RFID 태그에 정보를 저장하여 사물에 부착한 뒤, RFID 리더기를 통해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기존 바코드 사용법과 다소 유사
  - 다만 바코드와 달리 주파수 인식, 비접촉 및 원거리 사물 인식 가능, 대량 상품 동시 인식 및 수정 등이 가능해 물류·유통·재고 관리 등의 자동화에 특히 용이
  - 이미 하이패스, 와인 태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사물인터넷(IoT) 등의 산업 발달에 따라 RFID 적용 범위가 의료, 전자출입명부, 자동차 전장부, 스마트 공장 등으로 다양화 되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 이에 따라 RFID는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

○ (참고) RFID와 바코드의 차이 및 RFID 작동 원리

〈RFID와 바코드의 차이〉

구분	바코드	RFID
정보 전달 방식	빛(레이저)	주파수
읽고 쓰기	읽기만 가능	읽기·쓰기 모두 가능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인식 불가/ 단거리만 인식	인식 가능/ 장거리도 인식
정보의 보관	표면에 드러나 훼손 가능성 높음	내장되어 훼손 가능성 낮음

〈RFID 작동 원리〉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10)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무선주파수(전파)를 이용해 물건,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전자태그라고도 함. RFID 시스템은 태그(안테나+칩), 리더기로 구성되며 넓게는 S/W(호스트)도 포함





## □ 코로나19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 가속 속에 물류·의료 등을 중심으로 RFID 수요처 급증

- RFID는 유통·재고 관리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의 한 축인 무인점포 시스템 도입에 핵심 요소
  - 유통·물류·재고 관리 측면에서 RFID는 스티커 형태의 태그인 ‘스마트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생태계를 결합해 라벨링된 제품을 RFID 리더기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활용
  - 이러한 경우 실시간 제품 현황(판매, 입고, 출고, 재고 등) 확인은 물론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 세부 정보 등도 파악이 가능해 유통·물류 관리 효율성 증대에 탁월
    - ※ 일례로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랄프로렌(Ralph Lauren)은 전체 의류 라인에 고유의 스마트 라벨을 부착해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연동. 이로써 실시간 데이터 수집은 물론 마케팅, 유통 등의 전략을 세울 때도 유용하게 활용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제조, 배송 시점, 판매 시점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가품 사기에 대한 위험이 감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 일상화, AI·IoT 등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 무인점포(편의점, 대형마트, 숙박업소 등) 시스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 속에 핵심 기술인 RFID가 한층 더 각광
    - ※ '20년 초 中 텐센트가 전자지갑 위챗페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위라이프(We Life)’ 매장을 오픈. 해당 매장 내 모든 제품은 전자태그(RFID, 스마트 라벨)가 달려 있어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도 결제 및 실시간 재고 현황 파악이 즉각적으로 가능
  - '26년 글로벌 무인기기(Kiosk) 시장은 11.6억 달러('21~'26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 5.8%) 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이와 비례해 무인점포와 RFID 시장의 동반 성장이 기대(MarketWatch, '21.4월)
- 나아가 RFID를 의료 분야에도 접목해 환자 기록 관리, 의약품 관리 등으로 확대 적용
  - 글로벌 의료 분야 RFID 시장 규모는 '18년 25.8억 달러에서 '25년 106.5억 달러 수준('19~'25년 기준 연평균 성장률 22.4%)에 이를 전망(KOTRA, '20.9월, Grand View Research)
  - 먼저 의약품 재고 관리의 경우 의료용품마다 RFID 태그를 부착한 뒤 RFID 리더기를 각 병실 천장에 설치하여 의료용품의 실시간 재고, 현재 위치, 마지막 사용처 등까지 파악이 가능
  - 또한 환자의 예방접종 기록, 임신 기록, 알레르기 등의 의료 기록과 병력을 RFID에 저장함으로써 의료진들은 환자의 RFID 태그만으로도 환자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
  - 게다가 RFID 사용 시 환자의 등록 절차 역시 비접촉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확대가 기대
    - ※ 최근 스와이프센스가 RFID 기술과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를 결합한 ‘손 위생’, ‘접촉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여 주목. 이는 직원들이 착용한 RFID 태그가 손 세정제 등에 부착된 소형 RFID 리더의 일정 반경 안에 들어서면 직원들의 정보가 RFID 리더를 통해 RFID 소프트웨어로 전송.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위생 현황 파악이 가능

### ○ (참고) 국내의 RFID 활용 사례

- (RFID 종량기)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감량하고자 시행된 정책('13년)으로 수거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서 배출원별 정보를 확인하고 계량 후 수거료를 부과하는 방식
- 10여년간량이 지난 '21.1월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공동주택 15만 여 세대에 RFID 기반 종량기 약 1,750여대를 추가 설치 계획을 밝히며 환경보호를 위한 행보 지속. 환경 분야에서의 RFID 사용 확대도 기대

## □ 글로벌 업체는 ARC 인증 획득 등 기술 고도화에 방점, 국내 업체도 경쟁력 향상에 집중

- (글로벌 업체) RFID 인식을 제고를 위한 사업 인수, 성능 개선, 보안 강화 등에 만전
  - (Avery Dennison, 미국) '19.11월 Smartrac의 RFID 인레이(inlay)<sup>11)</sup> 사업을 담당하는 트랜스폰더 사업부를 2억 2,500만 유로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20.3월 인수 절차를 완료. 유통·물류 관리 측면의 사물 인터넷(IoT)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
  - '20.9월 동 사의 'AD-332u8' 인레이가 소매 환경 기준이 까다로운 ARC<sup>12)</sup> 카테고리 H 요구 사항을 통과했다고 발표. 해당 제품은 패션 소매·물류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ARC 인증을 통해 RFID 선두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
    - ※ 해당 제품은 접힌 옷이나 작은 품목(티셔츠 등)들이 소매점 바닥이나 창고에 쌓여있는 상황과 같이, 제한적인 공간에 대량의 상품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특히 적합해 신뢰성 높은 재고 파악이 가능
  - '21.4월 ARC 인증을 통과한 초소형 'Minidose U8 RAIN RFID' 인레이도 출시해 주목. 해당 제품은 모든 종류의 의약품에서 사용되는 포장, 디자인뿐만 아니라 주사기, 플라스틱 및 유리 바이알 등의 여러 품목에서도 정상 작동토록 고려한 제품으로 성능 또한 높은 것으로 관측
  - (NXP Semiconductors, 네덜란드) 'RFID & Wireless IoT Tomorrow 2020('20.11.23~12.18)' 행사에서 요금 징수, 차량 종류 식별 가능 등 자동차에 초점을 맞춘 RFID 칩 및 기술을 공개
  - 동 사의 RFID 칩을 자동차 앞 유리, 번호판, 헤드램프 등에 부착할 경우 차량이 주행 중인 상태에서도 신뢰성 높은 판별이 가능하며 AES 암호화 알고리즘도 사용해 보안도 한층 강화한 점에 눈길
- (국내 업체) 스마트 공장, 자동 정산 시스템 등을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에 매진
  - (세연테크놀로지) 국내 RFID 선두 기업인 동 사는 스마트공장에 중점을 두고 공장자동화를 위한 RFID 시스템 및 리더기 개발에 매진. '19.4월 다양한 주파수 대역 감지가 가능한 RFID 리더기를 공개
  - (아시아나IDT) '21.1월 '영구 부착형 UHF(극초단파) 대역 RFID 타이어 태그 및 이의 제조 방법'에 대해 미국·유럽 특허 출원을 완료해 주목
  - 해당 RFID 태그는 고온·고압 환경에서 제조되는 타이어 표면에 '부착'되어 생산자동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고 타이어 개별 인식을 통해 제조-물류-판매 전 과정의 이력관리도 가능
  - 타이어가 자동차에 장착되어 운행되는 과정에서 내구성을 유지하고 태그 칩 파손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되어 해당 태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장애 없이 통신도 가능
    - ※ 부착형 타이어 태그는 삽입형 태그 대비 투자비와 유지관리 비용 등이 저렴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평가
  - (아이지테크놀로지) 무인점포 자동 정산 시스템 보급을 위한 신뢰성 높은 RFID 태그를 개발('20.11월)

11) RFID Inlay는 RFID 제품 형태 중 하나로 RFID 칩, 안테나, 기판 등이 필름 상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 이외에 다른 형태의 RFID 제품으로 RFID Inlay가 종이 레이블에 실장된 RFID Label, RFID 칩과 안테나가 캡슐화된 RFID Tag가 있음

12) ARC(Arkansas Radio Compliance) 품질 인증은 ISO 인증을 보완하는 것으로 RFID 생산 및 제조 공정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 □ (수출 동향) '21년(3월 누적) 수출은 RFID 리더기·태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승

- (전체) 물류·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RFID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 성장세가 기대
  - (월별) '20.12월 RFID 리더기 수출(522만 달러, 29.6%↑) 반등으로 전체 수출(907만 달러, 9.9%↑)이 성장세로 전환된 후 2개월 연속 상승. 특히 '21.1월 수출은 두 자릿수 대로 큰 폭 증가해 눈길
  - '21.2월(510만 달러, △12.9%) 수출은 RFID 태그(246만 달러, △23.6%)가 반락하면서 주춤했으나 태그 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3월(658만 달러, △3.9%) 수출은 감소세가 한 자릿수 대로 완화
  - (연간) '20년 수출(7,734만 달러, △15.0%)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공급망이 중단 되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1년(3월 누적, 1,914만 달러, 2.9%↑)은 전년 기저효과, 의료·물류 등의 분야에서 RFID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반등

그림 2-4 월별 및 연간 수출 추이



주 : HSCODE 6코드 '482110(태그)', '847190(리더기)'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미국·인도네시아 등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베트남·일본 등은 호조세 기록
  - 지난해 수출 2위를 기록했던 미국이 '21.3월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5위로 하락한 반면, 베트남은 수출 반등을, 일본은 세 자릿수 대의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회복에 기여해 눈길

표 2-2 RFID 태그·리더기 수출 상위 5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20년 연간				2021년						
					3월 당월				1~3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5.5	-8.3	20.0	베트남	1.4	15.3	20.5	3.5	13.8	18.5
2	미국	8.5	19.6	10.9	일본	0.7	100.9	10.9	1.7	60.7	8.7
3	중국	7.0	-55.9	9.0	세네갈	0.6	230.1	9.5	1.4	197.2	7.5
4	인도네시아	5.9	-16.3	7.6	인도네시아	0.4	-45.5	6.8	1.0	-44.0	5.2
5	일본	5.6	20.2	7.3	미국	0.4	-53.6	6.3	1.8	-13.7	9.3

자료 : IITP, KTSPI

### 3 Ex-Briefing

#### □ 美, 中 견제를 위해 마련한 ‘2021 전략적 경쟁법’을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양국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

- 美 민주당·공화당 상원의원들의 합의로 상정된 해당 법안(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은 美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 찬성(찬성 21표, 반대 1표)을 보이며 본회의로 통과돼 눈길(4.21일)
  - ‘2021 전략적 경쟁법’의 주요 목적은 미국이 정치, 외교, 경제, 문화, 경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한 법률적 견제를 위한 것으로 美 양당이 합의해 상정
  - 공개된 ‘2021 전략적 경쟁법’ 초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美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6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 4억 5,000만 달러의 해상 안보 활동 지원 등이 포함
  - 이외에도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 등 전략무기 부분 감시, 중국 티베트·신장 및 홍콩 인권유린에 대응하는 조항,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강행 권한<sup>13)</sup> 등의 조항이 포함
  - 또한 대만으로의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민감한 내용 등도 포함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
  - 이러한 전략적 경쟁법과 별도로 美 양당의 상·하원 의원들은 기술 과학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끝없는 국경법(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 해당 법안은 향후 5년간 기초·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 1,000억 달러, 미국 내 새로운 기술 거점 마련에 1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
- 이에 中은 ‘2021 전략적 경쟁법’ 통과는 美의 패권 심리라 비난하며 심의 중단을 강력 촉구
  -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 전략적 경쟁법’은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발전을 용납하지 않는 美의 패권 심리와 미국만이 최고라는 생각 등이 반영되어 있다며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출
  - 특히 美 외교위원회가 법안 심사과정에서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강행 권한을 추가한 것에 대해 스포츠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 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의 주권과 영토에 관련된 문제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
    - ※ 대만으로 무기·방어 기술 이전을 권고하는 내용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연합 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대만과 미국의 공식 왕래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강조
  - 또한 中 시진핑 국가 주석과 美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영상 회의에서 만나는 기후정상회의 (4.22일)를 앞둔 시기에 상당히 적대적인 입법을 밀어 붙였다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
- 바이든 행정부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양국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

13) 베이징 참가 제한법은 자국 선수들의 출전은 허용하되 대표단 자금 지원은 막는 것이 주요 골자



## □ G20, 올해 7월 이내로 디지털세<sup>14)</sup> 및 글로벌 법인세 등의 조세 합의안 마련 예정(4.7일)

-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다국적 기술 대기업의 세금부과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지속
  - 현재 법인세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부과 가능해 디지털 기업의 경우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여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
  - 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은 미국 IT 기업 구글,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세 과세를 추진했으나 미국은 IT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자국 기업들만 차별적 타격을 받는다며 반대해 대립 구도 양상 지속
  - 또한 美는 디지털세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국가(오스트리아,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을 비롯한 20개국)들을 무역확장법 301조를 근거로 잠재적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며 반발
- 美는 각국의 개별적 디지털세 도입을 방지하고자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필라2, P2)를 먼저 제시하며 증세에 대한 주도권 확보 전략을 구사
  - 이전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위해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제시
  - 美 엘런 재무부 장관은 자국 내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OECD가 제시한 12.5%보다 높은 21%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 법인세 상향 시, 유럽국이 제기했던 문제(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고 특허권 등 무형 자산 소유권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 독일·프랑스·영국 등은 美의 행보에 지지를 표명
    - ※ 예를 들어 자회사를 둔 나라의 세율(실효세율)이 15%인데 최저세율이 20%로 설정되어 있다면 미달 세액인 5%를 본사가 있는 모국에 추가 과세하는 구조 즉,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뒀 이득을 보던 기업들로부터 추가 세금 징수가 가능
  - 특히 영국은 법인세 하한선 지정과 더불어 대규모 디지털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
- 이에 따라 美는 ‘최저 법인세율’ 제시 이후 후속조치로 139개국에 다국적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에 관한 공문을 전달
  - 이전 글로벌 법인세 논의 시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美의 IT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졌으나 해당 공문은 산업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라면 모두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필라1, P1)
  - 만약 美 정부가 제시한 공문대로 과세체계가 시행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P1에 따른 과세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논의 경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행보에 주목

14)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해 디지털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법인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방식. 구글, 페이스북 등 미 IT 대기업들이 주요 표적

**표 2-3 | 디지털세 관련 OECD의 주요 관점**

P1 : 고정사업장 외에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 도입		P2 : 그 밖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국적기업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낮은 수준으로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 국가에 과세권 부여</li> </ul>
적용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서비스사업, 소비자대상사업</li> </ul>	규칙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 산입) 국외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부분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최저한세율로 과세</li> </ul>
규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총매출액, 대상사업 총매출액, 이익률, 배분대상, 초과이익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li> </ul>	규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권 전환) 조세조약상 면세되는 국외소득이라도 원천지국에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거주지국으로 과세권 전환</li> </ul>
과세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소재국 내 중요하고 지속적 참여가 확인 되는 경우</li> </ul>	규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원잠식 비용 공제부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거주지국에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 비용공제 부인</li> </ul>
배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이익 결정, 통상이익 제거, 초과이익 중 시장 기여분에 해당하는 배분금액 도출, 배분기준에 따라 국가별 배분</li> </ul>	규칙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세조약 혜택 배제)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거주지국에서 비과세·저율과세되는 경우 원천지국 조세조약 혜택 배제</li> </ul>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이프 하버(safe Harbor) :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미국 주장)</li> </ul>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III

## 부록



### III 부록

####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4,572,047	-8.9	100.0	417,112	8.6	100.0	4,285,865	3.1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218,685	-12.5	70.4	290,885	7.7	69.7	2,984,428	1.3	69.6
- 전자부품	1,963,110	-17.5	42.9	177,231	9.2	42.5	1,791,291	-0.5	41.8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9,625	-18.2	2.2	11,868	17.3	2.8	141,800	58.7	3.3
- 통신 및 방송기기	396,963	-4.5	8.7	34,918	4.8	8.4	376,630	3.5	8.8
- 영상 및 음향기기	92,325	-5.4	2.0	6,902	-10.0	1.7	79,988	-5.4	1.9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66,662	0.4	14.6	59,967	5.8	14.4	594,718	-2.1	13.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770,021	0.4	16.8	68,069	3.8	16.3	726,120	3.0	16.9
- 통신서비스	359,141	-3.7	7.9	30,778	1.0	7.4	335,406	1.6	7.8
· 유선통신서비스	100,746	-4.5	2.2	8,341	0.4	2.0	92,284	-0.1	2.2
· 무선통신서비스	235,632	-3.6	5.2	20,614	1.5	4.9	223,026	2.8	5.2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762	0.2	0.5	1,824	-1.1	0.4	20,095	-3.8	0.5
- 방송서비스	191,824	2.5	4.2	16,326	1.5	3.9	178,872	2.4	4.2
· 지상파방송서비스	37,539	-1.4	0.8	3,113	0.7	0.7	31,207	-8.1	0.7
· 유료방송서비스	63,184	3.9	1.4	5,836	4.4	1.4	62,659	8.8	1.5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0,556	3.3	2.0	7,325	-0.3	1.8	84,521	2.2	2.0
· 기타방송서비스	545	2.4	0.0	53	5.9	0.0	485	-0.9	0.0
- 정보서비스	219,057	5.9	4.8	20,964	10.0	5.0	211,842	5.8	4.9
· 정보인프라서비스	39,143	-1.2	0.9	3,170	-8.5	0.8	34,990	-2.2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179,914	7.6	3.9	17,794	14.1	4.3	176,853	7.5	4.1
○ 소프트웨어	583,342	2.1	12.8	58,158	19.9	13.9	575,317	13.8	13.4
- 패키지 소프트웨어	103,567	0.4	2.3	9,225	0.8	2.2	89,724	1.1	2.1
- 게임 소프트웨어	123,016	3.7	2.7	12,234	32.5	2.9	135,654	24.0	3.2
- IT 서비스	356,759	2.1	7.8	36,698	21.8	8.8	349,938	13.9	8.2

자료 : KEA, KAIT, 2021.2.





## 2

## 2021년 3월 IC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년	5,478.7	1,552.4	-0.9	5,195.8	779.5	-4.4	282.9	772.8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b>2020년</b>	<b>5,125.0</b>	<b>1,835.1</b>	<b>3.8</b>	<b>4,676.3</b>	<b>1,126.3</b>	<b>3.9</b>	<b>448.7</b>	<b>708.8</b>
1/4분기	1,301.8	430.9	0.4	1,215.0	259.8	0.4	86.8	171.1
2/4분기	1,103.4	417.3	-5.8	1,083.9	267.8	-3.3	19.5	149.5
3/4분기	1,300.7	478.0	5.2	1,140.7	286.2	4.7	160.1	191.8
4/4분기	1,419.0	508.8	15.3	1,236.8	312.4	13.8	182.3	196.4
상반기	2,405.2	848.2	-2.8	2,298.9	527.6	-1.6	106.3	320.6
하반기	2,719.8	986.9	10.2	2,377.4	598.7	9.3	342.3	388.2
1월	431.0	134.0	-7.2	427.2	88.3	-6.1	3.8	45.7
2월	409.1	137.0	8.2	369.8	77.0	5.7	39.3	60.0
<b>3월</b>	<b>461.7</b>	<b>159.9</b>	<b>1.1</b>	<b>418.0</b>	<b>94.5</b>	<b>2.8</b>	<b>43.6</b>	<b>65.5</b>
4월	362.7	128.7	-15.3	379.3	88.7	-6.4	-16.6	40.0
5월	348.5	139.2	-2.7	346.6	89.3	-7.7	1.9	49.9
6월	392.1	149.5	0.9	357.9	89.8	5.0	34.2	59.6
7월	427.9	149.7	3.3	388.5	98.6	1.2	39.4	51.2
8월	394.7	152.2	0.2	358.2	92.0	4.4	36.5	60.1
9월	478.2	176.1	11.8	394.0	95.6	9.1	84.2	80.5
10월	448.2	163.9	5.9	390.9	102.2	9.3	57.2	61.7
11월	457.5	165.3	15.8	399.4	103.7	14.2	58.1	61.6
12월	513.3	179.6	24.9	446.4	106.5	18.2	66.9	73.1
<b>2021년</b>	<b>1,466.6</b>	<b>489.6</b>	<b>13.6</b>	<b>1,360.1</b>	<b>308.7</b>	<b>18.8</b>	<b>106.4</b>	<b>180.9</b>
1/4분기	1,466.6	489.6	13.6	1,360.1	308.7	18.8	106.4	180.9
1월	480.2	162.8	21.5	442.5	107.6	21.8	37.6	55.3
2월	448.1	152.6	11.4	421.1	91.9	19.3	27.0	60.8
<b>3월</b>	<b>538.3</b>	<b>174.1</b>	<b>8.9</b>	<b>496.5</b>	<b>109.3</b>	<b>15.7</b>	<b>41.8</b>	<b>64.9</b>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3.8	100.0	17,414	8.9	100.0	48,959	13.6	100.0
○ 전자부품	131,075	3.4	71.4	12,230	7.9	70.2	34,941	14.3	71.4
- 반도체	100,251	5.4	54.6	9,572	7.9	55.0	26,787	13.2	54.7
· 메모리반도체	63,929	1.5	34.8	6,120	8.2	35.1	16,659	14.5	34.0
· 시스템반도체	30,263	17.8	16.5	2,900	9.3	16.7	8,503	12.7	17.4
- 디스플레이	20,713	-5.1	11.3	1,686	2.9	9.7	5,377	18.7	11.0
- 전자관	4	-11.9	0.0	0	-56.2	0.0	1	-19.7	0.0
- 수동부품	2,032	6.5	1.1	202	29.6	1.2	582	31.9	1.2
PCB	5,032	4.8	2.7	461	9.8	2.6	1,320	9.3	2.7
- 접속부품	2,853	-0.3	1.6	290	21.3	1.7	818	19.4	1.7
- 기타전자부품	132	-17.0	0.1	13	2.7	0.1	38	1.6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53.0	7.6	1,309	6.7	7.5	3,373	1.3	6.9
- 컴퓨터	2,061	4.2	1.1	182	21.4	1.0	496	20.5	1.0
- 주변기기	11,846	66.6	6.5	1,127	4.7	6.5	2,877	-1.4	5.9
· 디스플레이장치	580	-39.1	0.3	57	-21.2	0.3	146	-31.5	0.3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16.1	0.2	38	26.7	0.2	103	25.5	0.2
· 보조기억장치	10,107	100.0	5.5	918	7.6	5.3	2,402	1.1	4.9
○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5.3	7.5	1,330	7.9	7.6	3,940	23.3	8.0
- 통신기기	13,208	-6.0	7.2	1,281	7.5	7.4	3,807	23.3	7.8
· 유선통신기기	825	-1.0	0.4	80	22.9	0.5	201	10.7	0.4
· 무선통신기기	12,383	-6.3	6.7	1,201	6.7	6.9	3,606	24.0	7.4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6.3	6.1	1,104	8.7	6.3	3,330	28.5	6.8
- 방송용 장비	469	21.0	0.3	49	17.1	0.3	133	24.2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40.8	1.4	209	-27.8	1.2	573	-26.6	1.2
- 영상기기	1,784	-48.1	1.0	146	-30.2	0.8	374	-32.1	0.8
· TV	1,474	-51.8	0.8	106	-42.2	0.6	272	-41.9	0.6
LCD TV	198	-47.6	0.1	2	-93.4	0.0	7	-93.2	0.0
TV 부분품	1,166	-54.7	0.6	102	-24.3	0.6	262	-22.3	0.5
· 셋탑박스	13	-39.0	0.0	0	25.0	0.0	4	197.0	0.0
- 음향기기	802	-16.3	0.4	61	-21.7	0.4	191	-13.1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2	0.0	3	-24.3	0.0	9	-14.0	0.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22,222	0.5	12.1	2,336	22.5	13.4	6,132	17.7	12.5
- 가정용전기기기	4,197	16.5	2.3	473	36.8	2.7	1,225	41.1	2.5
- 사무용기기	341	3.9	0.2	35	-2.7	0.2	88	-9.3	0.2
- 의료용기기	2,041	-4.3	1.1	220	19.5	1.3	575	18.8	1.2
- 전기 장비	10,435	-0.8	5.7	1,073	18.5	6.2	2,830	12.0	5.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1.0	4.1	803	24.4	4.6	2,072	14.9	4.2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12,628	3.9	100.0	10,927	15.7	100.0	30,871	18.8	100.0
○전자부품	61,644	5.6	54.7	5,766	12.6	52.8	16,207	12.7	52.5
- 반도체	50,627	6.8	45.0	4,694	12.8	43.0	13,343	12.7	43.2
· 메모리반도체	18,887	-2.2	16.8	1,475	12.6	13.5	4,361	5.1	14.1
· 시스템반도체	24,650	18.7	21.9	2,491	11.7	22.8	6,990	16.9	22.6
- 디스플레이	3,818	-8.0	3.4	311	-14.0	2.8	814	-12.7	2.6
- 전자관	56	34.6	0.0	7	58.8	0.1	15	-0.2	0.0
- 수동부품	2,229	12.7	2.0	241	27.0	2.2	647	29.5	2.1
PCB	2,364	4.8	2.1	241	32.8	2.2	657	26.6	2.1
- 접속부품	2,169	-2.1	1.9	232	20.4	2.1	626	23.2	2.0
- 기타전자부품	287	4.6	0.3	31	31.6	0.3	84	40.7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425	16.6	11.9	1,565	39.1	14.3	4,405	41.2	14.3
- 컴퓨터	7,954	14.6	7.1	1,036	46.2	9.5	2,845	52.0	9.2
- 주변기기	5,472	19.5	4.9	529	27.0	4.8	1,560	25.0	5.1
· 디스플레이장치	877	20.1	0.8	94	39.8	0.9	288	48.7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867	-1.8	0.8	91	7.6	0.8	261	20.4	0.8
· 보조기억장치	2,669	34.5	2.4	253	34.6	2.3	721	16.6	2.3
○통신 및 방송기기	14,509	-5.9	12.9	1,276	1.4	11.7	4,007	21.1	13.0
- 통신기기	14,033	-6.9	12.5	1,227	0.9	11.2	3,875	20.6	12.6
· 유선통신기기	1,916	-10.8	1.7	191	26.2	1.8	519	29.4	1.7
· 무선통신기기	12,117	-6.2	10.8	1,036	-2.7	9.5	3,356	19.3	10.9
휴대폰(부분품 포함)	9,067	-8.8	8.1	789	-4.9	7.2	2,516	16.7	8.1
- 방송용 장비	476	35.1	0.4	50	16.1	0.5	131	37.8	0.4
○영상 및 음향기기	3,378	-26.0	3.0	358	18.3	3.3	946	12.6	3.1
- 영상기기	2,144	-33.7	1.9	224	9.1	2.0	596	3.2	1.9
· TV	1,600	-40.5	1.4	177	9.4	1.6	473	1.2	1.5
LCD TV	663	10.6	0.6	83	36.3	0.8	236	49.0	0.8
TV 부분품	819	-59.0	0.7	69	-25.0	0.6	154	-46.6	0.5
· 셋탑박스	193	17.8	0.2	19	45.9	0.2	44	37.2	0.1
- 음향기기	1,004	-6.1	0.9	100	18.8	0.9	269	15.6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231	-12.9	0.2	33	165.7	0.3	82	171.0	0.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672	6.5	17.5	1,963	19.7	18.0	5,305	22.7	17.2
-가정용전기기기	3,945	9.5	3.5	347	49.1	3.2	1,002	43.8	3.2
-사무용기기	32	-28.5	0.0	4	4.5	0.0	9	2.6	0.0
-의료용기기	2,183	4.2	1.9	210	-3.5	1.9	549	-1.7	1.8
-전기 장비	5,905	10.9	5.2	653	25.1	6.0	1,792	36.2	5.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2,524	12.1	2.2	302	48.4	2.8	764	46.5	2.5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3월 당월			3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112,628	70,881	17,414	10,927	6,487	18,089
○전자부품	131,075	61,644	69,432	12,230	5,766	6,464	18,733
- 반도체	100,251	50,627	49,624	9,572	4,694	4,878	13,444
· 메모리반도체	63,929	18,887	45,041	6,120	1,475	4,645	12,298
· 시스템반도체	30,263	24,650	5,613	2,900	2,491	408	1,512
- 디스플레이	20,713	3,818	16,895	1,686	311	1,375	4,563
- 전자관	4	56	-52	0	7	-7	-14
- 수동부품	2,032	2,229	-198	202	241	-39	-64
PCB	5,032	2,364	2,669	461	241	220	663
- 접속부품	2,853	2,169	684	290	232	58	192
- 기타전자부품	132	287	-154	13	31	-18	-46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13,425	482	1,309	1,565	-256	-1,032
- 컴퓨터	2,061	7,954	-5,893	182	1,036	-854	-2,350
- 주변기기	11,846	5,472	6,375	1,127	529	599	1,317
· 디스플레이장치	580	877	-297	57	94	-37	-142
· 프린터(부분품포함)	362	867	-504	38	91	-53	-158
· 보조기억장치	10,107	2,669	7,438	918	253	664	1,682
○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14,509	-831	1,330	1,276	54	-67
- 통신기기	13,208	14,033	-824	1,281	1,227	54	-68
· 유선통신기기	825	1,916	-1,091	80	191	-112	-318
· 무선통신기기	12,383	12,117	267	1,201	1,036	166	250
휴대폰(부분품 포함)	11,228	9,067	2,161	1,104	789	314	814
- 방송용 장비	469	476	-7	49	50	0	1
○영상 및 음향기기	2,627	3,378	-751	209	358	-148	-373
- 영상기기	1,784	2,144	-359	146	224	-78	-222
· TV	1,474	1,600	-126	106	177	-70	-201
LCD TV	198	663	-465	2	83	-80	-230
TV 부분품	1,166	819	347	102	69	33	108
· 셋탑박스	13	193	-179	0	19	-19	-39
- 음향기기	802	1,004	-201	61	100	-39	-78
- 기타 영상음향기기	40	231	-190	3	33	-31	-73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19,672	2,550	2,336	1,963	373	827
- 가정용전기기기	4,197	3,945	253	473	347	125	223
- 사무용기기	341	32	310	35	4	32	79
- 의료용기기	2,041	2,183	-142	220	210	10	25
- 전기 장비	10,435	5,905	4,530	1,073	653	420	1,038
·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2,524	5,090	803	302	501	1,308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83,509	3.8	100.0	17,414	8.9	100.0	48,959	13.6	100.0
○ 아시아	141,680	3.2	77.2	13,243	8.1	76.0	37,688	14.3	77.0
- 중국(홍콩포함)	86,872	0.1	47.3	8,220	7.7	47.2	22,650	14.3	46.3
- 일 본	3,899	-5.2	2.1	407	-1.8	2.3	1,049	-2.4	2.1
- ASEAN	40,512	7.9	22.1	3,421	-1.0	19.6	10,509	5.7	21.5
· 싱가포르	3,231	12.6	1.8	394	7.6	2.3	950	5.9	1.9
· 인 니	779	-9.2	0.4	72	0.6	0.4	209	3.7	0.4
· 말 련	2,101	3.2	1.1	191	-3.4	1.1	559	3.1	1.1
· 태 국	1,130	1.3	0.6	114	15.4	0.7	314	14.8	0.6
· 베트남	29,763	9.6	16.2	2,353	-3.8	13.5	7,611	5.0	15.5
- 대 만	7,937	40.2	4.3	952	76.8	5.5	2,688	90.5	5.5
- 인 도	2,221	-20.9	1.2	224	25.5	1.3	740	9.4	1.5
○ 북미	22,771	18.3	12.4	2,111	2.7	12.1	5,956	10.6	12.2
- 미 국	22,085	20.2	12.0	2,064	4.1	11.9	5,782	10.7	11.8
- 캐나다	589	-24.9	0.3	38	-39.9	0.2	149	12.1	0.3
○ 유럽	12,566	4.7	6.8	1,398	34.1	8.0	3,562	19.9	7.3
- EU	10,402	-3.1	5.7	1,114	19.9	6.4	2,944	10.7	6.0
· 독 일	2,890	3.0	1.6	311	39.9	1.8	842	28.0	1.7
· 프랑스	595	-29.0	0.3	64	21.5	0.4	165	4.1	0.3
· 이탈리아	328	14.2	0.2	43	40.1	0.2	105	36.7	0.2
- 영 국	846	48.0	0.5	148	248.2	0.9	283	105.0	0.6
- 러시아	725	4.5	0.4	67	12.7	0.4	175	3.3	0.4
○ 중동	1,681	-13.7	0.9	161	-10.8	0.9	406	-17.6	0.8
- 사우디	238	2.0	0.1	24	6.4	0.1	57	-4.4	0.1
- UAE	569	14.4	0.3	68	9.4	0.4	141	-22.1	0.3
○ 중남미	3,807	-28.3	2.1	414	12.1	2.4	1,114	10.8	2.3
- 브라질	1,449	-16.7	0.8	151	17.4	0.9	435	12.0	0.9
- 멕시코	2,103	-24.4	1.1	229	8.9	1.3	597	10.7	1.2
- 칠 레	80	-1.3	0.0	13	34.9	0.1	28	12.1	0.1
○ 대양주	711	-4.8	0.4	55	-21.8	0.3	151	-11.1	0.3
- 호 주	634	-5.2	0.3	48	-23.0	0.3	131	-13.9	0.3
○ 아프리카	281	-20.2	0.2	32	6.1	0.2	80	4.2	0.2
※ 브릭스	67,226	0.6	36.6	6,144	13.3	35.3	17,556	18.4	35.9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12,628	3.9	100.0	10,927	15.7	100.0	30,871	18.8	100.0
○ 아시아	92,815	5.2	82.4	9,334	20.7	85.4	26,031	22.1	84.3
- 중국(홍콩포함)	48,230	3.0	42.8	3,713	-1.5	34.0	12,449	17.9	40.3
- 일 본	10,428	3.9	9.3	1,011	-1.3	9.3	2,807	13.8	9.1
- ASEAN	20,561	2.9	18.3	1,971	8.2	18.0	5,487	6.7	17.8
· 싱가포르	3,942	33.9	3.5	294	10.8	2.7	824	-8.3	2.7
· 인 니	475	11.8	0.4	69	75.8	0.6	210	91.2	0.7
· 말 련	3,277	2.0	2.9	306	10.3	2.8	862	7.2	2.8
· 태 국	1,545	14.2	1.4	180	40.8	1.6	483	33.9	1.6
· 베트남	9,747	-1.0	8.7	1,013	8.8	9.3	2,764	10.1	9.0
- 대 만	13,507	19.9	12.0	1,400	26.3	12.8	4,036	29.4	13.1
- 인 도	80	-17.4	0.1	8	-2.9	0.1	20	-10.3	0.1
○ 북미	8,368	-7.0	7.4	750	-5.7	6.9	2,214	1.1	7.2
- 미 국	8,033	-7.3	7.1	718	-6.0	6.6	2,130	1.2	6.9
- 캐나다	236	5.3	0.2	21	2.6	0.2	54	-6.6	0.2
○ 유럽	7,027	-5.3	6.2	679	7.9	6.2	1,725	0.7	5.6
- EU	6,095	-12.9	5.4	574	-3.6	5.3	1,483	-8.5	4.8
· 독 일	2,948	6.3	2.6	262	1.1	2.4	716	5.6	2.3
· 프랑스	750	-2.8	0.7	73	-0.2	0.7	168	-23.5	0.5
· 이탈리아	351	4.2	0.3	41	36.5	0.4	92	13.7	0.3
- 영 국	514	-3.1	0.5	56	43.6	0.5	126	3.7	0.4
- 러시아	21	18.5	0.0	2	-16.3	0.0	6	6.9	0.0
○ 중동	552	22.7	0.5	61	9.5	0.6	204	49.9	0.7
- 사우디	2	309.4	0.0	0	-36.5	0.0	1	81.9	0.0
- UAE	73	1.4	0.1	4	-11.7	0.0	12	-10.8	0.0
○ 중남미	889	-1.4	0.8	93	1.0	0.9	240	4.0	0.8
- 브라질	11	24.4	0.0	1	-14.5	0.0	5	115.4	0.0
- 멕시코	868	-1.5	0.8	92	1.2	0.8	235	3.1	0.8
- 칠 레	1	-59.4	0.0	0	13.1	0.0	0	-43.3	0.0
○ 대양주	91	-35.4	0.1	8	-5.2	0.1	22	7.0	0.1
- 호 주	62	-37.4	0.1	6	10.3	0.1	17	15.8	0.1
○ 아프리카	54	-9.6	0.0	3	-34.1	0.0	7	-37.8	0.0
※ 브릭스	47,389	3.8	42.1	3,680	-0.5	33.7	12,295	18.2	39.8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수출	수입	수지	3월 당월			3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83,509	112,628	70,881	17,414	10,927	6,487	18,089
○ 아시아	141,680	92,815	48,865	13,243	9,334	3,910	11,657
- 중국(홍콩포함)	86,872	48,230	38,642	8,220	3,713	4,506	10,201
- 일 본	3,899	10,428	-6,530	407	1,011	-604	-1,757
- ASEAN	40,512	20,561	19,951	3,421	1,971	1,450	5,022
· 싱가포르	3,231	3,942	-711	394	294	100	127
· 인 니	779	475	304	72	69	4	-1
· 말 련	2,101	3,277	-1,176	191	306	-115	-303
· 태 국	1,130	1,545	-415	114	180	-66	-170
· 베트남	29,763	9,747	20,016	2,353	1,013	1,340	4,847
- 대 만	7,937	13,507	-5,570	952	1,400	-448	-1,348
- 인 도	2,221	80	2,141	224	8	216	720
○ 북미	22,771	8,368	14,403	2,111	750	1,361	3,743
- 미 국	22,085	8,033	14,052	2,064	718	1,346	3,652
- 캐나다	589	236	353	38	21	17	95
○ 유럽	12,566	7,027	5,539	1,398	679	719	1,837
- EU	10,402	6,095	4,307	1,114	574	540	1,461
· 독 일	2,890	2,948	-58	311	262	48	126
· 프랑스	595	750	-155	64	73	-10	-3
· 이탈리아	328	351	-23	43	41	3	12
- 영 국	846	514	331	148	56	92	157
- 러시아	725	21	704	67	2	65	169
○ 중동	1,681	552	1,129	161	61	101	202
- 사우디	238	2	236	24	0	24	57
- UAE	569	73	496	68	4	64	128
○ 중남미	3,807	889	2,917	414	93	321	874
- 브라질	1,449	11	1,438	151	1	150	430
- 멕시코	2,103	868	1,236	229	92	137	363
- 칠 레	80	1	79	13	0	13	28
○ 대양주	711	91	620	55	8	47	129
- 호 주	634	62	572	48	6	42	114
○ 아프리카	281	54	227	32	3	29	73
※ 브릭스	67,226	47,389	19,837	6,144	3,680	2,464	5,261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9,345	-0.3	100.0	1,124	30.6	100.0	10,100	8.1	100.0
○ 전자부품	2,424	3.8	25.9	294	33.2	26.1	2,609	7.7	25.8
- 반도체	1,722	6.1	18.4	203	29.3	18.1	1,877	9.0	18.6
- 디스플레이 패널	258	2.6	2.8	25	24.0	2.2	244	-5.1	2.4
- 전자관	1	-27.5	0.0	0	25.3	0.0	1	-17.1	0.0
- 수동부품	83	-13.7	0.9	24	163.8	2.2	115	38.9	1.1
- PCB	147	-4.1	1.6	16	28.6	1.5	151	3.1	1.5
- 접속부품	189	2.3	2.0	22	17.4	1.9	197	4.0	1.9
- 기타 전자부품	25	-3.8	0.3	3	11.7	0.2	24	-2.1	0.2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3	-3.5	19.6	217	34.9	19.3	2,024	10.4	20.0
- 컴퓨터	1,201	-3.8	12.8	149	47.2	13.3	1,385	15.4	13.7
- 주변기기	633	-2.9	6.8	68	14.0	6.0	639	1.0	6.3
· 디스플레이장치	158	2.6	1.7	17	31.4	1.5	162	2.7	1.6
· 프린터(부품포함)	157	-8.3	1.7	13	-7.4	1.2	128	-18.4	1.3
· 보조기억장치	173	-3.0	1.8	17	-1.6	1.5	174	0.4	1.7
· 저장 매체	34	6.5	0.4	3	2.5	0.3	32	-6.2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11	-4.6	1.2	17	49.1	1.5	144	29.4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2	-6.8	25.4	267	19.6	23.8	2,373	0.1	23.5
- 통신기기	2,274	-6.7	24.3	253	18.2	22.5	2,265	-0.4	22.4
· 유선통신기기	484	9.0	5.2	53	14.9	4.7	498	3.0	4.9
· 무선통신기기	1,790	-10.2	19.2	200	19.1	17.8	1,766	-1.3	17.5
- 방송국용 기기	98	-9.2	1.0	14	52.5	1.2	108	10.8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39	-5.6	6.8	79	45.8	7.1	689	7.8	6.8
- 영상기기	323	-8.0	3.5	35	21.6	3.1	338	4.5	3.3
- 음향기기	209	-2.2	2.2	29	45.0	2.6	234	12.1	2.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06	-4.8	1.1	15	177.6	1.3	116	9.7	1.2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2,078	8.2	22.2	267	32.3	23.7	2,405	15.8	23.8
- 가정용 기기	769	5.7	8.2	98	49.7	8.7	909	18.2	9.0
- 사무용 기기	44	6.8	0.5	4	6.4	0.4	40	-9.3	0.4
- 의료용 기기	113	23.1	1.2	15	28.0	1.3	162	43.3	1.6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97	12.6	2.1	28	45.9	2.5	243	23.3	2.4
- 전기 장비	955	8.0	10.2	122	20.0	10.8	1,052	10.2	10.4
· 건전지 및 축전지	206	11.8	2.2	28	36.6	2.5	241	17.1	2.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9년			2020년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183	-3.5	100.0	702	23.0	100.0	6,742	9.0	100.0
○ 전자부품	4,297	-3.8	69.5	480	23.6	68.4	4,772	11.1	70.8
- 반도체	3,536	-2.5	57.2	396	24.3	56.5	4,001	13.2	59.3
- 디스플레이 패널	317	-6.1	5.1	29	9.7	4.1	296	-6.6	4.4
- 전자관	2	-6.6	0.0	0	33.9	0.0	2	3.6	0.0
- 수동부품	146	-17.9	2.4	25	48.5	3.5	179	22.9	2.7
- PCB	113	-9.1	1.8	11	13.3	1.6	109	-3.3	1.6
- 접속부품	179	-8.1	2.9	18	11.9	2.6	181	1.1	2.7
- 기타 전자부품	5	-22.7	0.1	0	-1.8	0.1	4	-9.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1	-3.2	6.8	44	6.9	6.3	450	6.8	6.7
- 컴퓨터	32	-31.8	0.5	3	-6.7	0.4	29	-11.1	0.4
- 주변기기	389	0.3	6.3	41	8.0	5.8	422	8.3	6.3
· 디스플레이장치	8	28.5	0.1	1	15.7	0.1	8	7.9	0.1
· 프린터(부품포함)	65	-8.8	1.1	6	4.1	0.8	56	-14.7	0.8
· 보조기억장치	228	1.2	3.7	24	6.9	3.4	257	12.6	3.8
· 저장 매체	43	-4.6	0.7	6	28.6	0.9	47	9.2	0.7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5	12.7	0.7	5	-2.6	0.7	54	19.2	0.8
○ 통신 및 방송기기	473	-13.2	7.7	63	35.5	9.0	473	-0.1	7.0
- 통신기기	439	-12.2	7.1	60	34.8	8.5	448	1.9	6.6
· 유선통신기기	66	6.8	1.1	8	32.1	1.1	69	5.1	1.0
· 무선통신기기	373	-14.9	6.0	52	35.2	7.4	378	1.4	5.6
- 방송국용 기기	34	-24.7	0.6	4	49.1	0.5	25	-26.0	0.4
○ 영상 및 음향기기	175	-1.7	2.8	22	33.3	3.1	196	12.0	2.9
- 영상기기	120	-4.5	1.9	18	63.2	2.6	148	23.9	2.2
- 음향기기	49	-0.7	0.8	4	-29.4	0.5	43	-13.3	0.6
- 기타 영상음향기기	6	88.5	0.1	1	1.5	0.1	5	-15.4	0.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16	4.7	13.2	93	18.9	13.2	850	4.2	12.6
- 가정용 기기	181	1.4	2.9	17	7.3	2.5	180	-0.6	2.7
- 사무용 기기	5	-10.3	0.1	0	-13.7	0.1	5	-14.0	0.1
- 의료용 기기	106	17.9	1.7	15	20.3	2.1	113	6.2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38	7.0	5.5	41	27.0	5.9	364	7.8	5.4
- 전기 장비	186	-1.8	3.0	19	14.6	2.7	188	1.5	2.8
· 건전지 및 축전지	68	-7.4	1.1	7	13.4	1.0	71	3.8	1.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486	-6.6	100.0	197	-5.1	100.0	415	-1.5	100.0
○ 전자부품	848	-2.4	34.1	67	-1.9	33.9	144	1.4	34.7
- 반도체	643	-0.3	25.9	50	-1.2	25.3	109	2.4	26.2
- 디스플레이 패널	31	-0.3	1.3	3	8.3	1.4	5	13.0	1.3
- 전자관	3	-1.0	0.1	0	-25.9	0.1	0	-21.5	0.1
- 수동부품	31	-0.5	1.2	3	1.6	1.3	5	7.4	1.3
- PCB	12	-4.0	0.5	1	-0.6	0.4	2	0.1	0.5
- 접속부품	125	-12.4	5.0	10	-7.3	5.3	22	-5.9	5.2
- 기타 전자부품	2	-18.3	0.1	0	-14.4	0.1	0	-21.4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357	-2.3	14.4	28	0.5	14.3	60	4.0	14.5
- 컴퓨터	153	-1.7	6.1	12	2.7	6.2	26	5.0	6.2
- 주변기기	204	-2.8	8.2	16	-1.1	8.1	35	3.2	8.3
· 디스플레이장치	15	-16.8	0.6	1	-19.9	0.6	2	-13.1	0.6
· 프린터(부품포함)	33	-22.5	1.3	3	-16.1	1.4	6	-14.9	1.4
· 보조기억장치	51	-4.2	2.0	4	-6.9	1.8	8	-2.1	1.9
· 저장 매체	61	31.3	2.4	5	29.4	2.6	11	34.3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4	-10.6	1.8	4	-7.4	1.8	8	-2.1	1.8
○ 통신 및 방송기기	334	-12.1	13.5	28	-1.1	14.2	59	2.8	14.3
- 통신기기	310	-11.5	12.5	26	-0.6	13.1	55	3.2	13.4
· 유선통신기기	161	-10.1	6.5	12	-4.0	6.2	25	-2.9	6.1
· 무선통신기기	149	-12.9	6.0	14	2.7	7.0	30	9.1	7.2
- 방송국용 기기	25	-19.1	1.0	2	-7.8	1.0	4	-2.5	1.0
○ 영상 및 음향기기	84	-16.1	3.4	6	-15.1	3.1	13	-8.2	3.1
- 영상기기	33	-27.7	1.3	2	-20.0	1.2	5	-11.9	1.2
- 음향기기	37	-8.9	1.5	3	-19.9	1.4	5	-14.6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4	2.1	0.6	1	21.9	0.5	2	29.5	0.5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62	-9.0	34.7	68	-10.5	34.5	139	-7.3	33.4
- 가정용 기기	120	-8.4	4.8	9	-10.1	4.8	20	-8.3	4.7
- 사무용 기기	9	-18.4	0.3	1	-21.5	0.3	1	-20.5	0.3
- 의료용 기기	262	-1.7	10.5	21	-7.6	10.5	40	-6.3	9.8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77	-8.8	11.1	22	-9.1	10.9	45	-4.8	10.8
- 전기 장비	194	-17.4	7.8	16	-15.5	8.0	33	-10.6	7.9
· 건전지 및 축전지	49	-9.9	2.0	4	-22.0	1.9	8	-15.1	1.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5,218	1.4	100.0	408	22.2	100.0	866	20.4	100.0
○ 전자부품	893	3.1	17.1	70	6.7	17.2	146	5.5	16.9
- 반도체	695	7.4	13.3	53	5.8	12.9	110	4.4	12.7
- 디스플레이 패널	30	0.5	0.6	2	4.4	0.6	5	10.8	0.6
- 전자관	3	-7.8	0.0	0	8.6	0.1	0	6.5	0.0
- 수동부품	30	-11.5	0.6	3	28.2	0.7	6	14.7	0.7
- PCB	17	-6.5	0.3	1	17.0	0.3	3	18.8	0.4
- 접속부품	113	-11.3	2.2	10	5.7	2.4	20	5.9	2.4
- 기타 전자부품	5	-20.3	0.1	0	3.8	0.1	1	3.0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76	10.5	26.4	101	37.7	24.7	219	31.4	25.2
- 컴퓨터	879	14.9	16.8	63	62.0	15.3	139	49.2	16.0
- 주변기기	497	3.5	9.5	38	10.6	9.4	80	8.8	9.2
· 디스플레이장치	78	-13.7	1.5	6	45.1	1.6	14	45.6	1.6
· 프린터(부품포함)	117	-18.9	2.2	10	4.3	2.4	21	1.6	2.4
· 보조기억장치	85	19.7	1.6	8	36.9	2.0	15	13.1	1.7
· 저장 매체	145	32.4	2.8	9	-16.3	2.3	19	-7.8	2.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10.6	1.4	5	24.7	1.2	11	16.8	1.3
○ 통신 및 방송기기	1,082	-7.0	20.7	78	20.1	19.1	172	20.1	19.8
- 통신기기	974	-7.6	18.7	70	19.3	17.3	156	20.7	18.1
· 유선통신기기	404	-2.3	7.7	28	10.1	6.8	60	5.4	6.9
· 무선통신기기	570	-11.0	10.9	43	26.1	10.4	97	32.7	11.2
- 방송국용 기기	108	-1.5	2.1	8	28.7	1.9	15	14.6	1.8
○ 영상 및 음향기기	357	10.5	6.8	30	66.8	7.3	63	62.0	7.3
- 영상기기	161	-5.9	3.1	10	-1.9	2.4	21	-1.9	2.4
- 음향기기	122	19.9	2.3	12	84.2	2.9	25	82.9	2.9
- 기타 영상음향기기	73	47.8	1.4	9	387.0	2.1	17	335.7	2.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0	-2.5	28.9	129	15.1	31.7	267	14.8	30.8
- 가정용 기기	401	4.5	7.7	35	36.5	8.5	75	40.8	8.6
- 사무용 기기	24	-14.6	0.5	2	-15.4	0.4	4	-11.1	0.4
- 의료용 기기	311	1.7	6.0	26	8.5	6.4	51	5.6	5.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68	-7.2	5.1	22	-0.5	5.3	43	-0.3	5.0
- 전기 장비	506	-6.7	9.7	45	15.5	11.1	93	12.6	10.8
· 건전지 및 축전지	105	14.5	2.0	11	41.3	2.6	21	33.6	2.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7,160	-3.5	100.0	12,058	-3.7	100.0	24,149	3.9	100.0
○전자부품	77,039	-0.2	52.4	6,247	0.1	51.8	12,734	6.9	52.7
- 반도체	46,414	1.9	31.5	3,700	-1.0	30.7	7,589	6.2	31.4
- 디스플레이 패널	7,314	-7.1	5.0	531	-9.6	4.4	1,125	-4.1	4.7
- 전자관	261	-4.1	0.2	24	7.5	0.2	44	14.6	0.2
- 수동부품	9,385	6.8	6.4	823	12.8	6.8	1,638	18.2	6.8
- PCB	2,987	-0.8	2.0	221	0.2	1.8	472	13.5	2.0
- 접속부품	10,158	-8.5	6.9	896	0.1	7.4	1,768	7.2	7.3
- 기타 전자부품	520	-18.6	0.4	51	1.4	0.4	99	0.9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2,449	-12.3	8.5	1,066	-11.2	8.8	2,104	-7.2	8.7
- 컴퓨터	993	2.1	0.7	72	-7.6	0.6	137	-11.0	0.6
- 주변기기	11,456	-13.4	7.8	994	-11.4	8.2	1,967	-6.9	8.1
· 디스플레이장치	1,154	-1.7	0.8	115	-0.5	1.0	216	1.4	0.9
· 프린터(부품포함)	8,070	-15.9	5.5	709	-12.1	5.9	1,416	-7.6	5.9
· 보조기억장치	184	-41.6	0.1	13	-31.6	0.1	23	-38.0	0.1
· 저장 매체	1,535	-2.5	1.0	115	-12.5	1.0	230	-6.9	1.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14	-8.9	0.3	42	-15.3	0.3	82	-1.3	0.3
○통신 및 방송기기	6,326	-15.0	4.3	528	-7.6	4.4	1,015	-5.3	4.2
- 통신기기	3,765	-15.7	2.6	297	-10.1	2.5	589	-5.4	2.4
· 유선통신기기	1,093	-14.4	0.7	99	-4.8	0.8	179	-7.7	0.7
· 무선통신기기	2,673	-16.2	1.8	198	-12.6	1.6	410	-4.3	1.7
- 방송국용 기기	2,561	-14.1	1.7	232	-4.2	1.9	426	-5.2	1.8
○영상 및 음향기기	5,297	1.7	3.6	296	-33.7	2.5	667	-9.2	2.8
- 영상기기	1,933	-18.9	1.3	144	-21.8	1.2	300	-4.9	1.2
- 음향기기	447	-10.6	0.3	42	-0.1	0.3	76	0.8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2,917	25.4	2.0	111	-50.0	0.9	291	-15.3	1.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6,048	-5.0	31.3	3,920	-3.3	32.5	7,630	5.2	31.6
- 가정용 기기	9,231	-5.6	6.3	776	-0.6	6.4	1,498	14.6	6.2
- 사무용 기기	369	-14.4	0.3	22	-40.2	0.2	50	-20.1	0.2
- 의료용 기기	5,959	-1.0	4.0	498	-5.5	4.1	962	3.7	4.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8,067	-7.4	12.3	1,589	-2.3	13.2	3,079	4.6	12.8
- 전기 장비	12,422	-2.3	8.4	1,036	-4.5	8.6	2,040	1.3	8.4
· 건전지 및 축전지	6,201	-3.2	4.2	576	11.3	4.8	1,093	11.4	4.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1~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48,819	-2.9	100.0	12,404	34.4	100.0	27,234	20.9	100.0
○ 전자부품	36,602	-5.7	24.6	2,988	11.1	24.1	6,323	6.3	23.2
- 반도체	28,333	-5.5	19.0	2,305	6.5	18.6	4,915	5.7	18.0
- 디스플레이 패널	1,684	0.3	1.1	118	9.9	1.0	244	-2.3	0.9
- 전자관	120	19.3	0.1	21	352.1	0.2	25	16.3	0.1
- 수동부품	1,106	-11.5	0.7	84	25.9	0.7	181	7.9	0.7
- PCB	1,302	-2.7	0.9	102	19.7	0.8	218	7.6	0.8
- 접속부품	3,596	-9.4	2.4	314	34.6	2.5	648	10.5	2.4
- 기타 전자부품	462	-6.1	0.3	44	60.4	0.4	92	29.7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7,890	7.9	18.7	2,248	46.3	18.1	5,129	29.4	18.8
- 컴퓨터	16,943	16.0	11.4	1,330	69.9	10.7	3,213	50.6	11.8
- 주변기기	10,947	-2.6	7.4	919	21.7	7.4	1,917	4.7	7.0
· 디스플레이장치	1,554	37.6	1.0	139	56.1	1.1	298	25.2	1.1
· 프린터(부품포함)	3,794	-11.7	2.5	325	48.8	2.6	642	4.2	2.4
· 보조기억장치	2,249	-16.2	1.5	193	-11.5	1.6	380	-18.3	1.4
· 저장 매체	1,578	-0.1	1.1	109	-26.8	0.9	243	-14.4	0.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73	14.2	1.2	153	90.0	1.2	353	55.9	1.3
○ 통신 및 방송기기	31,277	-0.7	21.0	2,590	59.7	20.9	6,473	49.4	23.8
- 통신기기	28,805	-0.1	19.4	2,380	63.0	19.2	6,032	53.9	22.1
· 유선통신기기	7,704	7.7	5.2	606	44.7	4.9	1,301	18.8	4.8
· 무선통신기기	21,101	-2.6	14.2	1,774	70.3	14.3	4,731	67.5	17.4
- 방송국용 기기	2,472	-8.0	1.7	210	30.0	1.7	441	6.5	1.6
○ 영상 및 음향기기	11,380	-3.8	7.6	884	54.6	7.1	1,912	22.1	7.0
- 영상기기	6,316	-5.2	4.2	502	46.8	4.0	1,040	11.5	3.8
- 음향기기	3,160	-6.4	2.1	250	30.6	2.0	563	14.7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904	6.7	1.3	131	247.1	1.1	309	116.1	1.1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1,669	-7.8	28.0	3,694	31.3	29.8	7,396	10.2	27.2
- 가정용 기기	12,735	-1.6	8.6	988	58.2	8.0	2,031	17.4	7.5
- 사무용 기기	726	-15.7	0.5	74	73.0	0.6	148	1.7	0.5
- 의료용 기기	6,570	-12.3	4.4	608	7.5	4.9	1,172	3.6	4.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8,690	-11.6	5.8	839	14.0	6.8	1,632	3.9	6.0
- 전기 장비	12,948	-7.9	8.7	1,184	40.5	9.5	2,412	13.2	8.9
· 건전지 및 축전지	2,293	-3.8	1.5	201	68.0	1.6	415	23.8	1.5

자료 : Uncomtrade, KITA

##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5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8	53,588	41.4	451,371	62.8	11,238	28.6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p	53,356	6.4	342,077	-26.1	15,207	18.0
	2018.1/4	12,527	75.9	102,167	77.7	2,863	52.4
	2/4	12,543	84.5	98,533	73.7	2,665	42.5
	3/4	11,321	12.8	98,704	77.8	2,665	41.8
	4/4	17,197	23.4	151,967	41.3	3,045	-2.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7	-6.3	90,801	-36.0	3,191	2.7
	2/4	11,165	6.4	73,821	-34.0	3,572	20.1
	3/4	9,492	0.9	59,016	-39.7	3,763	13.2
	4/4p	20,352	19.3	118,439	6.2	4,681	34.3
직접구매 (수입)	2018	17,921	103.0	99,226	32.1	1,344	118.9
	2019	15,236	-15.0	93,777	-5.5	909	-32.4
	2020p	19,322	26.8	54,979	-41.4	964	6.1
	2018.1/4	5,236	100.6	25,635	37.7	244	110.3
	2/4	3,854	88.6	28,160	79.2	379	351.2
	3/4	4,320	114.1	27,358	43.1	313	219.4
	4/4	4,511	109.0	18,073	-16.7	408	29.1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6	-15.2	24,131	33.5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2	-5.6	14,052	-38.4	227	-0.4
	3/4	7,777	111.9	14,958	-41.2	179	24.3
	4/4p	3,591	-6.1	13,103	-45.7	375	-3.1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6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1월	149.9	215.4	23.0	34.4	100.6	111.3	33.9	43.2	59.2	73.4	119.5	145.8
2월	156.3	221.8	20.3	30.1	93.3	103.1	36.7	45.8	60.2	74.5	119.1	144.5
3월	182.4	253.4	26.0	37.6	103.1	115.3	41.9	52.3	70.2	85.7	140.4	170.8
4월	151.5	201.2	17.8	26.1	89.3	99.9	40.7	49.1	48.4	57.4	112.1	136.0
5월	170.6	226.2	22.0	34.5	89.5	100.6	43.9	53.6	49.0	57.3	107.1	131.0
6월	173.6	229.8	24.6	38.3	101.6	114.7	47.4	58.2	59.9	70.2	126.1	155.3
7월	164.2	227.2	25.1	37.5	115.8	129.9	51.9	64.3	62.9	70.7	135.6	167.2
8월	173.8	242.8	25.4	36.9	109.8	122.8	51.7	65.3	63.4	72.0	133.1	164.3
9월	196.3	276.2	25.5	35.4	122.6	136.3	54.2	69.3	85.0	96.4	158.7	194.9
10월	175.6	256.7	24.3	32.0	113.6	126.4	47.7	63.8	92.4	104.8	146.3	179.2
11월	174.9	256.8	24.2	30.0	113.4	125.4	54.5	72.8	97.0	111.8	158.6	193.5
12월	192.8	284.4	25.9	31.3	115.5	127.6	57.3	76.5	102.8	117.9	168.7	205.5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7	100.9	148.0	183.8
2월	172.0	248.5	20.6	25.0	103.5	113.8	43.3	58.4	70.9	80.7	142.2	175.5

자료 : 한국은행

**표 3-17**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1월	121.2	166.0	34.4	45.2	90.3	101.0	148.7	152.7	130.8	149.3	108.6	108.3
<b>2월</b>	<b>126.5</b>	<b>172.8</b>	<b>20.5</b>	<b>26.6</b>	<b>76.8</b>	<b>85.9</b>	<b>89.9</b>	<b>92.9</b>	<b>92.3</b>	<b>105.3</b>	<b>109.5</b>	<b>109.0</b>
3월	132.7	180.3	31.1	38.8	99.4	111.6	144.1	148.9	135.4	155.0	128.6	128.6
4월	116.4	152.6	35.3	44.8	95.3	106.8	145.5	150.1	128.9	154.6	117.2	117.3
5월	125.9	165.5	26.3	34.8	88.1	97.9	137.7	143.3	130.1	155.6	98.6	98.6
6월	125.1	164.4	37.5	49.3	88.8	98.5	129.0	133.0	117.2	141.3	124.0	124.1
7월	145.2	196.7	33.3	41.3	101.4	112.9	128.9	133.1	128.7	161.0	131.4	131.0
8월	143.7	195.1	33.6	40.3	105.8	117.9	121.2	125.5	104.1	129.3	120.8	119.7
9월	145.3	197.2	23.3	26.2	107.1	119.1	135.9	141.1	111.3	138.4	126.4	124.4
10월	152.0	213.9	23.9	25.1	113.3	125.2	133.9	139.7	138.2	168.4	132.1	129.9
11월	148.0	208.2	25.8	25.2	117.8	130.1	147.0	153.1	159.8	192.8	128.5	125.8
12월	148.9	209.5	26.7	25.1	120.8	133.2	170.6	177.3	149.5	179.8	148.0	143.9
21.1월	148.2	207.5	33.5	30.9	119.9	131.6	206.0	213.9	161.8	190.0	148.3	142.3
<b>2월</b>	<b>133.3</b>	<b>186.6</b>	<b>26.7</b>	<b>23.0</b>	<b>101.7</b>	<b>111.0</b>	<b>155.4</b>	<b>160.3</b>	<b>112.3</b>	<b>131.9</b>	<b>136.6</b>	<b>131.7</b>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김현중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박찬선, 최재원,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30, 팩스 : (042) 612-8209